

안녕하십니까?

미리 말하지만, 이 글을 읽고 난 뒤에는 그대 마음에 적지 않은 경각심이 생길 것이다.

그럴 의도로 이 글을 썼다.

그대가 현재 2023 학년도 수능을 치를 이과생이라면,

이 글은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자, 그럼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다.

이 글은 **이과생 입장에서 뺨정시러로 대학을 준비할 때,**

평상시 정확히 얼마만큼 공부해야,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평, 그리고 수능 날 때 재수생/n 수생들과 비밀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글이 되겠다.

학생부종합도 아니고, 학생부교과도 아니고, 특기자도 아니고, 논술도 아닌...

온전한 개뺨정시러는 앞으로 10 개월동안 뭘 해야 하는지.

(미안합니다 이거 원래 1 월정도쯤에 올리는건데 제가 대학 학기가 엇그제 끝나서 이제서야 올립니다.

오늘 3 월 26 일이니까 여러분들은 7 개월정도 남았어요ㅠ)

최근에 친한 친구의 예비 고 3 동생이 나한테 상담을 요청했다.

남은 10 개월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정시로 스카이/의치약한을 갈 수 있는지 감이 안 잡힌다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 친구도 이과 개뺨정시러다.

필자는 마지막 수능을 본 지 2 년이 넘었기에 그닥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험생 3 년 동안의 기억을 고집어내면서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해줬다.

이 글은 바로 그 상담 요약본이 되겠다.

요약본을 읽어보니 나름 알고 가면 좋은 내용들이 꽤 나온 것 같았다.

그 동생만 이 내용을 알기에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미안하니까,

이렇게 오르비라는 플랫폼에 올려둬 본다.

필수적인 것들만 담아놨으니 집중하고 읽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필자의 평소 다른 글들과는 달리 이 글에서의 필체는 편의상 이렇게 적었다.

끝마다 ~습니다. ~입니다. 까지 쓰면 뭔가 안 와닿을 것 같아서ㅋㅋ;;

친한 형이 그대를 위해 진심 어린 글을 썼다 생각(?)하고 이해해주길 바란다.

많은 친구들이 아직 **뺨정시러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다.

고 3 은 물론, 심지어 많은 재수생/n 수생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로 **가식 없이, 적나라하게, 뜯구름 잡는 소리 없이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정시의 '현실'을 파악해줄 것이다.**

'**에이, 앞으로 10 개월만 쪽 공부하면 어떻게든 되겠지**'처럼 뺨정시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글 끝까지 제대로 읽고 정신차리길 바란다.

곧 있으면 그 수치들을 알려줄 건데,

그 수치들은 곧 그대들의 '현실'이다.

이때, 그대들은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렵다고 현실을 계속 외면하고 피하면,

그대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

필자가 재수와 3 수를 한 이유도, 고 3 내내 그 현실을 계속 피했다였기 때문이다.

가끔, 현실을 마주하면 꽤나 큰 동기부여가 생기게 된다.

그대들은 꼭 현실을 직시해서 본인을 발전시키면 좋겠다.

이 글은 크게 **A.**와 **B.**로 나누겠다.

A.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뺨정시러의 현실을 알려주는 내용이고,

B.는 **A.**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들이 실질적으로 평상시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정시에서 나름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될 것이다.

A.

이과 뺏정시러라면 목표 대학의 기준은 반드시 의치한약/서연고(이과)로 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정시전형으로 이들 대학이나 과에 합격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수치적으로 표현하겠다:

전체 이과생들 중 상위 4% 안에 드는 수능성적을 받아내는 것이다.

심지어 서연고지방한은 대충 상위 3~1%,

지방의치는 대충 상위 2%,

수도권의치한은 대충 상위 0.5%,

메저의치는 상위 0.15%의 수능점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정시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2022 학년도 수능을 치를 이과생들은 대충 작년과 비슷하게 **15 만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4~5 만명**은 재수/n 수생들이다.

이때, 15 만명 중에서 4%는 **6 천명**이다.

2022 학년도 의치한약/서연고(이과) 정원은 약 **1 만명** 내외가 되는데,

이들 중에서 이과 정시전형 인원수만 생각한다면 **3 천명** 정도가 된다.

자, 3 천명은 15 만명 중에서 2%에 해당한다.

이때, 뺏정시러들이 응시할 수 있는 논술전형도 생각해보면,

뺏정시러들이 의치한약/서연고(이과)에 가기 위해서는 **상위 4% 정도 이상의 수능성적을 받아야 하는 사실**이 대충 맞아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방금 제시한 수치들이 물론 '정확'하진 않겠지만,

뺏정시러가 의치한약/서연고를 가기 위해서는 상위 4% 이상의 수능성적을 받아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상위 5%도 아니다. **상위 4%**이다.

이 4%라는 수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올해 2022 수능에 응시할 15 만명을 큰 경기장에 다 모아놨다고 생각해보면,

그 15 만명 중에서 4%, 즉 6 천명 안에 들어야 의치한약/서연고를 갈 수 있다는 것이다.

4%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

그대 주변에 24 명의 친구들이 있다면,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24 명은 'out'이라는 거다.

이게 이과 정시의 '현실'이다. 알아두길 바란다. (문과는 조금 더 심하니 이과생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B.

이제는 그대들이 2022 수능에서 상위 4% 이상의 성적을 거두려면 뭘 얼마나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겠다.

먼저, **그대들이 해야 할 앞으로의 10 개월 동안의 수능공부**를 짧게 요약하겠다.

다만, 수학과 과탐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국어와 영어는 공부법이 살짝 다르다. 국어와 영어는 이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 글의 포커스는 수학과 과탐이다.)

그대들의 10 개월은 총 3 단계로 나뉜다:

1 단계: 기출반복을 통한 베이스 형성, (지금 ~ 6 평 전날)

2 단계: ebs 연계교재, 시중의 다양한 n 제, 실전모의고사들을 통한 순발력/내공쌓기 (6 평 이후 ~ 9 평 전날)

3 단계: 기출, ebs, 시중의 다양한 모의고사, n 제 등등의 무한병행 (9 평 이후 ~ 수능 전날)

방금 알려준 3 단계 요약을 잘 기억하길 바란다.

다시 알려주겠다.

1 단계: 기출반복을 통한 베이스 형성, (지금 ~ 6 평 전날)

2 단계: ebs 연계교재, 시중의 다양한 n 제와 실전모의고사들을 통한 순발력/내공쌓기 (6 평 이후 ~ 9 평 전날)

3 단계: 기출, ebs, 시중의 다양한 모의고사, n 제 등등의 무한병행 (9 평 이후 ~ 수능 전날)

앞으로 10 개월 동안 위 3 개 단계를 순탄히 진행한다면,

정시로 4% 안에는 드는 실력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필자를 믿어라. 정말이다.

그러나, 아주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이 **1 단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음이 급한 나머지 **2 단계**로 넘어간다.

여기서 필자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다: '사상누각'

이 사자성어를 통해 필자가 그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이 있다면 무엇일까?

제발 1 단계부터 제대로 하라는 것.

대충대충 하지도 말고, '다음에...' '좀 나중에...' 하면서 미루지도 말고...

수능날이 가까워질수록, 학기초부터 매사 최선을 다한 것이 본인에게 최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시간낭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는 '제대로'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대들이 볼 시험은 수능, 즉 **평가원에서 만들어내는 시험**이다.

그럼 가장 먼저 그대들이 해야 할 일은 평가원에서 만들어내는 그 시험문제들부터 파악해야 하는 것이 돼야 한다.

이건 기본이자 상식이고, 이 과정이 '지옥'이 돼야 한다.

연계된다고 ebs 부터 보는 놈들, 지엽개념부터 꼼꼼이 알아간답시고 뉴탐스런이나 완자부터 보는 놈들은,

가지만 볼 줄 알고 나무를 볼 줄 모르는 거다.

이에 따라 시간낭비는 저절로 하게 된다.

그대들은 이리지는 말자.

그렇다면, 수능공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수능공부의 시작은 **ebsi**의 수능개념인강이나 유명 인강강사들의 수능개념인강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서, 자이스토리와 같은 유형별 기출문제집이랑 병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

수능공부의 시작은 **ebsi**의 수능개념인강이나 유명 인강강사들의 수능개념인강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서, 자이스토리와 같은 유형별 기출문제집이랑 병행하는 것이다.

자이스토리를 혼자 푸는 게 버거우면 강남구청인강 결제해서 병행해라.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평가원 기출문제’들은 어떻게 생겼고,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부터 알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다.

완자, ebs, n 제, 사설문제 등등들이 아니라.

자, 이제 그대들은 다시 필자가 아까 언급한 세 단계 중에서 처음으로 돌아와,
1 단계의 '기출 베이스 형성'을 무엇으로 어떻게 얼마나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일지가 궁금해져야 한다.

(지금부터 다시 집중해서 읽자)

이에 대한 해답은 우선은 유형별 기출문제집의 '반복'이다.

'지옥'에서 탈출하면서도 동시에 실력/내공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이다.

명심하자.

이때, 필자는 이 '반복'이라는 것을 2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을 할 것이다.

첫 번째 영역은 '어떻게 반복을 하느냐' 이고,

두 번째 영역은 '얼만큼 반복을 하느냐' 이다.

우선 [p.8 부터]가 바로 첫 번째 영역인 '어떻게 반복을 하느냐'를 주로 다룬다.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다만, [p.8 부터]는 수학에 대해서만 다루고, 작년 버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자. (기백 내용이 없음)

그러나, 저 파일에 담긴 내용을 글로 고안하기 위해 필자는 월 단위의 시간을 투자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이제 두 번째 영역인 '얼만큼 반복을 하느냐'에 대하여 설명을 할 것이다.

수학, 과탐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 평까지 과목별로 기출문제집 2 회독씩 해야 한다.'

다시 말한다.

5 월 말까지 수학, 과탐만큼은 수 I, 수 II, 수학선택, 과탐선택 1, 과탐선택 2 - 이 다섯 권의 책을 2 회독씩, 총 10 권을 풀어야 한다.

수학/과탐만 관련하여, 6 평 전까지, 남은 4 개월 동안 10 권...

지름길 같은 건 없다.

그리고 이 과정이 '지옥'이 돼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기출 베이스'라는 것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 10 권을 4 개월 동안 다 풀려면 하루 동안 구체적으로 몇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알아보자.

<자이스토리>나 <검더빙>과 같은 유형별 기출문제집을 보면, 권당 전체 문항 수가 적혀 있을 것이다.

쉬운 문항은 제외하고, 난이도 있는 문항은 한 회독 당 두세 번 정도 풀었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책 하나 당 700 문제 정도를 풀게 될 것이다.

그러면 4 개월 동안 각 과목 당 2 회독을 하려면, 4 개월 동안 총 몇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는 것일까?



7000 문제이다.

그래서 기출 베이스를 쌓기 위해서는 대충 최소한 7000 문제는 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것도 수학과 과탐만.

그러면 오늘(2021 년 1 월 20 일)부터 6 평까지 약 130 일이 남았는데,

그대가 사람이라면 130 일 '연속' 공부는 불가능할 것이다.

필자도 일주일 중에서 하루, 또는 반나절 정도는 쉬어야만 했다.

필자의 경우,

월~토는 항상 7 시 기상, 대부분 밤 12 시 30 분까지 공부했고,

일요일은 대부분 9 시 정도에 기상, 그리고 저녁 6 시 이후부터는 무조건 놀았다.

어쨌든 그래서, 그대에게는 지금부터 6 평 전까지 130 일이 아닌, 100 일이 남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100 일 동안 하루에 수학은 대충 40 문제, 과학은 두 과목 합해서 대충 30 문제씩 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맞다.

그러나 이 생각도 해보자:

그대들은 하루 수학공부를 할 때 몇 문제씩 처리 가능한가?

필자의 경험상, 재수와 3수 때도 하루 4시간 동안 수학은 40문제도 풀기 힘들었다.

킬러문제만 푸는 날은 4시간 동안 10문제도 못 풀었다.

정말로 치열하게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집중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빨리 먹고 하루종일 13~14시간씩 공부만 해야 (인강 포함) 하루 수학 30~40 문제, 과학 30~40 문제가 가능했다.

(아, 필자는 밥 먹고 바로 졸려지는 체질이라 밥 먹고 나서 바로 이 닦고 15분 쪽잠을 잤다. 쪽잠을 잘 자고 이를 습관으로 만들면 평소에 정말로 집중이 잘 된다.)

하루 13~14 시간.

하루 수학 3~4시간, 과탐도 3~4시간씩 해야 그만큼의 문제를 풀 수 있었다.

물론 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문제가 안 풀려서 집중 끊기고 멍때리고 딴생각나고 그랬다.

국어와 영어도 하루에 각각 3~5시간, 1~2시간을 했다.

인강은 과목별로 1시간 내외를 차지했다.

다 합하니 하루에 13~14시간이 맞아떨어진다.

필자는 6평 전까지 정말로 치열하게 살았다. 물론, 6평 후에도 수능날까지 미친듯이 살았다.

핸드폰도 없었다. 학기초에 부모님 보는 앞에서 망치로 부셨다. 고로 유튜브나 카톡도 없었다. 그때그때 유행하는 노래도 아예 몰랐다.

전자기기관 오직 인강을 위한 태블릿만 있었다.

정말로 작년과 비하여 스스로가 달라졌다는 것이 느껴졌을 정도로 공부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6평 전까지 과목별로 1.5회독밖에 하지 못했다. 또한 매일매일이 '지옥'같은 날들이었다. 스브 뭐만 하면 계속 여기저기 구멍들이 보였다...

그런데 6평 백분위는 95%가 나왔다.

? 참 아이러니했다.

2회독도 온전히 해내지 못했고, 기출 구멍이 매일 보였고, 매일 그 구멍들을 메꾸느라 바빴는데,

생전 처음으로 평가원 시험에서 95%가 났다.

..고 3 때는 기출 유형 분석 및 회독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필자였다.

한 번 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만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친 적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고 3 때는 아주 멍청하게도 1회성/휘발성 공부를 했었다.

필자의 적은 시간투자(하루 8~9시간정도만 공부) 역시 이를 악화시켰었다.

..그래서 고 3 1년 내내 평균이 4등급이었던 필자였다.

이때 필자가 느낀 점이,

'아, 기출문제 유형만 뻥세게 익히고 풀고 구멍찾아 메꿨을 뿐인데도 1등급 턱걸이는 나오는구나'
이었다.

여기서 그대들이 알아갔으면 할 점은 2가지다.

첫째, 기출 베이스 형성만으로 평가원 시험(교육청시험, 사실시험 말고)에서 1등급 턱걸이 실력 형성이 가능하다.

둘째, 다만 하루 13~14시간의 뻥센 시간투자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전부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대들이 6평 전까지 해야 할 일이다.

하루 8시간, 9시간?

이거로는 절대로 부족하다.

더 힘을 내서 12~13시간으로 늘리는 게 맞다.

그러나, 정말로 이는 사람이 달라져야 가능하다.

8~9시간에서 12~13시간으로 늘리는 것은 **정말로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

마음 속에 '여유'라는 게 생기면 안 된다.

'편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된다.

아주 큰 결심과 정신력의 개조가 필요한 일이다.

이 '바뀐'이 없으면 그대는 앞으로 1년 내내 8~9시간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평생 남게 될 것이다.

시도마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과연 미래의 내 자신에게 몇몇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남기 싫다면, **오늘, 지금부터 꼭 바뀌자.**

언제까지 늦출 수는 없지 않는가.

지금 이 시기에는 눈만 뜨면 공부만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래야 의치한약/서연고 라인에 지원할 수 있는 정시 실력을 수능날이 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야 시간 안에 **1 단계**가 완성이 되고, **2 단계**와 **3 단계**가 잇따라 시간 안에 완성이 된다.

1,2,3 단계를 다시 보여주겠다.

1 단계: 기출반복을 통한 **베이스 형성**, (지금 ~ 6 평 전날)

2 단계: ebs 연계교재, 시중의 다양한 **n 제**와 **실전모의고사**들을 통한 **순발력/내공쌓기** (6 평 이후 ~ 9 평 전날)

3 단계: 기출, ebs, 시중의 다양한 모의고사, n 제 등등의 **무한병행** (9 평 이후 ~ 수능 전날)

필자는 그대들에게 6 평 전까지 기출반복을 5 번씩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4 회독씩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3 회독도 아니다.

2 회독이다.

한 과목 당 전 범위를 **2 번 이상**만 반복하면 기출 베이스가 형성이 된다. 필자를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해 두면 좋겠다.

그대들 중 두꺼운 기출문제집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푼 경험이 있는 이들은 절대로 많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만이라도 불태우면서 풀어보자.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얻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물론, 6 평 전까지 수/과학의 킬러 유형들은 특별히 5 번 이상은 봐놓아야 할 것이다.

자이스토리에 있는 킬러유형들을 강남구청인강에서는 어떻게 푸는지, ebsi 선생님들은 어떻게 푸는지, 유명 인강강사들은 어떻게 푸는지를 일일이 찾아내면서 본인의 풀이를 구축해나가라. 특히 과탐을.

2 회독이라고 킬러유형마저 2 번만 보는 호구는 되지 말자.

6 평 훨씬 전에 전 과목 기출 2 회독(**1 단계**)을 이미 끝낸 그대들은,

2 단계 혹은 **3 단계**를 미리미리 시작하면 된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시작할수록 경쟁자들과 격차가 그만큼 벌어질 것이다.

1 단계를 끝냈지만 아직도 몇몇 구멍이 있는 느낌이 있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두렵다? 아니다. 그대들은 괜찮다. **1 단계**를 잘 끝낸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구멍을 메꿔놓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6 평 전까지 **1 단계** 끝내는 사람 거의 없거든. 6 평 전까지 **1 단계**를 끝내놓은 학생은 이미 그 정신력부터가 정시로 의치대 가고도 남는다.

그대가 4~5 만명에 해당하는 재수생/n 수생이라면,

6 평 전까지 **1 단계**를 제대로 끝마쳐야 한다는 사실은 알 것이다.

1 년 공부 해봤으니 기출 체화와 베이스 형성의 중요성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나, **그대들 4~5 만명 중 70% 이상은 6 평 전까지 1 단계 완성을 못 해낼 것이다.**

그래도 **1 만명** 이상은 해내겠지? 1 만명도 15 만명 중에서 7%나 된다.

그대가 나머지 10~11 만명에 해당하는 고 3이라면,

이미 1 만명 이상의 재수/n 수생들이 1 단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15 만명 중 1 만명은 이미 4%를 훌쩍 넘는다. 그리고 이미 재수/n 수생들이 정시판의 25%를 차지한다.

이제 그대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 재수/n 수생들과 비빌 수 있는지는 수치만 따져도 답이 나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 3 이든 n 수든,

하루 13~14 시간은 꼭 지켰으면 한다.

안 그러면 +1 수를 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수치적으로라도 정시의 '현실'을 알려줬으니,

이왕 백정시러가 됐으면 잠시 11 개월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하는 것이 현명한 그대가 되지 않을까.

글은 여기까지다.

글이 상당히 길어 요약을 원하는 이들이 있을 테지만,

이 글은 요약을 하지 않겠다.

여러 번 읽고 본인 스스로 요약을 해라.

이미 필자가 중요한 건 볼드체로 해뒀다.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6 평 전까지 뭘 해야 하는지를 글을 처음부터 쭉 다시 읽으면서 알아냈으면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이 글을 읽는 이들의 능동성을 일깨워 몸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다.

이 글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현역 때는 전과목 3과 4를 왔다 갔다 했고,
재수해서 정시로 한양대학교 사범대학을,
3수해서 수리논술로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 합격한 3수생입니다.

논술학원에 다녀본 적은 일절 없고,
오로지 수능 수학만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최종적으로는 논술로 대학을 합격했는데,
현역 4등급에서 재수 1등급이 되기까지 오랜 수험생활을 통한 시행착오와 순수 노력으로 수학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제가 수학에 대한 특별한 소질이 없는 뇌를 갖고 있다는 점과
수능수학에 관련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학생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고2 때는 2~3, 현역 때에는 3~4등급대였지만, 재수를 시작하면서 이 글에 언급되는 대로만 공부하여,
18학년도 6월, 9월, 수능, 19학년도 6월, 9월, 수능 모두 1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고3과 재수생이 수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발돋움을 시작할 시기가 찾아왔기도 했고,
지인들의 간절한 요청도 많았기에,

재수와 3수 때 수학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주제로 **매우 자세하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현역 때는 수학공부를 잘못된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현역 때의 수학공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은

1. 남학생이고,
 2. 이과생이고,
 3. 재수와 3수를 했으며,
 4. 재수와 3수 때 모두 재수종합학원을 다녔고,
 5. 강남이나 대치동이 아닌 경기도 지역 학생이다
-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그나마 완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남은 9개월 동안 수학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학생 또는
재종합원에 다닐 계획이 있는 학생

들일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비 고3분들과 **현역**분들은 본인이 재수생의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앞으로 고3 동안 할 법한 과오들을 제가 지금 미리 어느 정도 교정해준다 생각하고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며,

재종합원이 아닌 독재학원이나 다른 종류의 학원을 다니는 학생분들은 스스로 잘 끼워 맞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쓴 방식은 [재수종합학원을 다닐 때의 생활 및 노하우]와 [수학 문제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섞어서 썼습니다.
참고로 [재수종합학원을 다닐 때의 생활 및 노하우]는 제가 재종합원에서 재수와 3수를 했을 때 겪은 경험을 주로 해서 썼습니다.

정말 정성을 많이 들여 쓴 글입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pdf. 파일을 **출력을 하여**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도움이 배가 될 겁니다.

도움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폰으로 대충 읽지 마시고,

꼭 출력을 한 뒤 밑줄과 하이라이터 등등을 칠하면서 읽으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이거 출력은 했니?

안 했다고?...

이 글을 폰으로 한 번 읽고 말 거라면,

읽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까먹으니까요.

다른 분들의 칼럼이나 정보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글들은 출력물을 항상 남겨놓으세요.

연필/하이라이터 들고, 밑줄 치고, 이 글을 통째로 독파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읽어서 머릿속에 되새길 수 있도록,

특정 부분을 읽는 순간 생기는 궁금증들을 그때 바로바로 글 옆에 적을 수 있도록,

본인의 머릿속에 이 글의 중요한 것들을 최소 한 달 이상 동안 남길 것이라는 의도로 읽으세요.

그래야 생각이 쉽게 바뀌고, 나쁜 습관도 쉽게 고쳐지고, 남들보다 빨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더 읽기 전에... 지금 당장 출력하라고 빨리 새까 뭐하는거야;
근데 미안한데 출력할꺼면 양면인쇄해줘.. 우리 다같이 종이 아껴야지...

그렇다면,
글 시작합니다 :)

< 재종학원에 다니는 재수생·n수생의 수학 공부에 필요한 10가지 자료 >

재종학원(독학재수학원 말고)을 다니는 재수생, n수생의 수학 공부와 관련된 것들은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1. 인강
2. 학원수업
3. 개념서
4. 수학공식책
5. 학원교재 & 프린트
6.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
7. 모의고사 형태로 된 기출문제집
8. 교육청 문제만 있는 기출문제집
9. 학원월례모의고사
10. 시중에 파는 실전모의고사(봉투모의고사) 및 다양한 n제

1. 인강 - < 평가원문제 해설강의 아무쌤꺼, 올해 6평해설강의 아무쌤꺼, 올해 9평해설강의 아무쌤꺼 >

저의 경우는 고3때나, 재수때나, 3수때나 딱히 어떤 특정한 인강쌤 커리를 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수학은 평가원 문제만 분야별로 3번 이상 반복해서 풀었고, 못풀겠다 싶으면 아무 인강쌤의 풀이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EBS 인강쌤도 괜찮습니다. 제 목표는 '이 인강쌤이 좋아', '이 인강쌤이 잘 가르쳐' 이런 게 아니라, '평가원 문제의 풀이 방법 그거 하나라도 내 머릿속에 제대로 집어넣자'였거든요.

여기서, [수학공부를 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강선생님들이나 학원선생님은 나를 도와주는 '도구'로만 생각하라

입니다. 그 '도구'로 반드시 만들어내야 하는 '결과'는 [내 머릿속에 정보를 담아두는 것]이구요. 결과에 목표를 뒀아지, 도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가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인강 얘기로 돌아올게요.

저는 재종에서 들은 수업 자체를 인강이라고 생각했고, 그 수업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에, 수학은 따로 시간을 내서 다른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순수 자습시간도 평일은 하루에 6시간, 잘하면 7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학 커리를 들을 바에야 그 시간에 과탐 인강을 듣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ㅋㅋ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재수했을 때 들은 [수학과 관련된 인강]은

1. [평가원 문제 해설 인강]과

2. [올해 평가원 시험문제 해설강의]만

6평과 9평 시험을 본 직후에 날짜랑 시간대를 정해서 들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2. 학원수업

가려서 들으세요. 인강도 모든 강의를 다 듣지는 않잖아요? 수업 도중 도움이 되는 부분만 눈치채서 듣거나, 도움이 아예 안 된다 싶으면 자습 - 학원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거나, 기출문제집의 3점짜리 문제를 푸세요. 대신 선생님이 하는 그 수업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게 좋겠죠? 재량껏, 눈치껏ㄱㄱ

3. 개념서

개념서 중에는 <수학의바이블(이투스북) 미1,미2,확통,기백.>이 가장 깔끔하고 상세하고 스스로 공부하는걸 가능하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공부하실 때 개념서로만 마이웨이식으로 공부하시면 공부 효율이 떨어집니다. 학원수업과 함께, 더 나아가 인강과 함께 공부해야 효율이 올라간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예를 들어, 재종학원에서 주로 3시 전까지는 학원수업이 있잖아요? 그날 학원수업을 듣고, 3시 이후 자습할 때 학원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개념서에서 찾아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훑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그 부분에 해당하면 인강을 또 듣구요.

여기서 [재수종합학원의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재종학원은 매주 정해진 시간마다 수업이 있으므로 페이스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학원에 대한 마음가짐]은

학원을 다니는 목적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페이스 유지를 위해서 다닌다고 생각하자

입니다. 생각해보면 학원을 주기적으로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하게 해온 공부를 3일만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잘 알아야요?ㅋㅋ

4. 수학공식책

시중에 파는 수학공식책은 제가 알기로는 <형상기억수학공식책(수경출판사)>. 이 한 권 뿐입니다.

이 책은 그냥 개념서 군데군데에 있는 개념들을 한군데에 모아준 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스킬들이 담겨 있는 책이 아니라 그냥 레알로 개념만 모아둔 책이라 별거는 없는데,

재수 초기 때는 까먹었거나 그닥 친숙하지 않은 공식 및 개념이 몇몇 있기 마련이므로, 구멍들을 보완할 겸 스스로 쪽 살펴보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공부를 해가면서 혹시라도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좋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부분부분 보다가 9페이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복습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그리고 수능 일주일 전에 한 번 쪽 훑었습니다.

5. 학원교재 & 프린트

보통 학원교재나 학원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프린트는 '기출문제집 요약판 + 사설문제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원교재나 프린트에 있는 기출문제는 **한 문제당 10분 이내로** 풀 수 있는 건 다 푸시고, 사설문제도 **10분 이내로** 풀 수 있는 건 다 푸세요. 보통 기출문제는 **한 문제당 10분 안에** 다 풀 수 있어야 하고, 사설문제 중에서는 '이건 너무 오바다'하는 문제는 풀지 말고 건너뛰세요. 또한, 어떠한 문제는 **10분 이상** 투자했는데 안 풀린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일단 답지부터 보시고**, 답지를 봐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과감히 버리세요**.

저는 학원교재의 기출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사설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풀 수 있는 것만 풀었고, 10분이 넘으면 답지를 본 뒤, 그래도 안 풀리면 '이건 내 한계야' 하면서 문제에 굵게 X표 쳤습니다. 단, 제가 문제를 과감히 버렸을 때는 제 스스로 한계를 부정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었고, '아직 실력이 덜 쌓인 것 같고 다른 문제들도 풀 게 많으니까 그것부터 하자'의 마인드로 과감히 버린 것입니다.

학원교재는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학원교재는 역대 모든 기출문제를 다 실어놓은 건 아니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뽑아와서 짜집기를 해서 만든 책이 주를 이루는데,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만든 교재가 오히려 본인이 수학 전 범위를 빠르게 돌려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재입니다. 어떤 대표유형의 문제에서 막히는지도 바로바로 알려주는 교재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학원의 미2교재(저 때는 명칭이 미2,기백,확통이었습니다)는 일종의 "미2를 가볍게 한바퀴 훑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했고, 기백교재도 "기백을 가볍게 한바퀴 훑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술술 풀었습니다. 확통교재도 마찬가지. 학원교재를 풀면서 막히는 문제들을 봤을 때는

'아, 내가 지금 이 유형의 문제가 약하구나. 선생님께 이 유형과 관련된 비슷한 문제들만 모은 프린트를 줄 수 있는지 부탁해봐야겠고, 정 안되면 친구한테 이런 유형들은 어떻게 푸는지 물어보거나, 나 혼자서 기출문제집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찾아 풀면서 이 유형은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마스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학원교재에서 틀린 문제가 딱히 정해진 유형이 없고 유별나게 독특한 형태의 문제라면, 그 문제 자체만 보고 최대한 그 문제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건 다 얻어가자는 마인드로 문제를 독파하세요.

5. 학원교재&프린트의 앞부분에서 이미 읽으셨겠지만, 여기서 얻어가셔야 할 [수학문제를 풀면서 가져야 할 습관]은

어떤 수학문제든, 10분을 투자했는데도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면, 곧바로 답지를 보라

(그러나 10분째인데 절반 이상은 풀었고 한두개만 더 알아내면 된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만 더 써도 됩니다)

입니다. 이 습관은 꼭 의식적으로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10분이 넘어도 "안돼, 난 꼭 이 문제는 며칠이 걸리더라도 답지 없이 혼자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사고력이 길러질거야!!"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ㅋㅋ 수능 수학은 사실 '암기'입니다 여러분.

"? 아니 swk님이 수학이 암기라니;; 뭘 개소리세요?!"

하 참. 끝까지 읽으세요 —;—;

여기서 '암기'란, 수학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어떤어떤방법으로 풀었다'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과 메커니즘을 체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문제 자체를 암기한다'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여러가지 도구들을 익혀서 잘 조합해 써먹자!'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암기해 놓고 그것을 밑바탕으로 하여, 똑같은 문제를 몇 번을 보았고, 그 문제의 메커니즘을 다른 문제에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외워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흔히 말하는 '수학적 사고력'은 반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거지, 한 문제 붙들고 고민해봤자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분 제한을 건 것입니다.

(방금 마지막 문장은 제 3년간의 수험생활동안 얻은 '주관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10분 제한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만큼은 **본인 앞에 타이머나 시계를 두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타이머보다는 오히려 그냥 앞에다가 시계를 두고 시간이 대략 몇 분 정도 지나갔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게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때는 시계를 잘 볼 줄 알아야지, 타이머는 못 갖고 들어가잖아?

수능기출문제집에 대한 기본설명

6과 7.을 따로따로 설명해드리기 전에 우선은 수능기출문제집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능기출문제집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해드린 후, 각각 다뤄야 하는 적절한 시기와 용도 순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능기출문제집에는 그 종류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이고, 다른 하나는 [모의고사로 된 기출문제집]이에요.

둘 다 평가원의 기출문제들은 기본으로 들어 있으며, 전자는 대부분 교육청 기출문제들까지 수록돼 있으나 후자는 교육청 기출문제들이 수록된 문제집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집들도 있습니다.

이때, 두 종류의 기출문제집을 공부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2월, 3월, 4월, 5월중순까지는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으로만 공부를 하셔야 하고,

[모의고사로 된 기출문제집]은 그 이후에, 즉 **수능에 나올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쌓은 뒤부터** 본격적으로 사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종류의 기출문제집의 사용 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각각의 용도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은 **평상시 자습할 때 특정 유형에 대해 알아가거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셔야 하고,

[모의고사로 된 기출문제집]은 **수능 개념과 수능에 나올 유형들이 어느 정도 공부된 후부터 전 범위가 제대로 기억이 나는지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평가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모의고사에 대한 감을 끌어 올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두 종류의 기출문제집들은 거의 똑같은 기출문제들을 담고 있지만,

각각의 용도에 대한 차이는 반드시 미리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각 종류의 기출문제집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에는 그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마플>, <자이스토리>, <마더텅검정책>, <빅데이터>, <기출의고백>, <너희들의기출문제>, <미래로>, <기출N제4점집중>, <씨리얼>, <수학의 명작>, <이동훈 기출문제집> 등등이 있을 텐데,

저는 이들 중 <마플>과 <자이스토리>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도 저는 마플이 더 좋더라고요. 자이보다 유형별로 문제를 잘 묶어놨어요.

그리고 문제 ㄹㅇ많아요ㅋㅋㅋ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은 지수·로그의 일부분과 경우의 수의 일부분을 제외하면(애네들은 좀 많이 쉬우니까), 수1·미적분·확통 각각에 대하여 **수능날까지 적어도 3번 이상**은 돌려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본인과 스스로

6평 전까지는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을 수1·미적분·확통 각 분야별로 최소한 1회독 이상씩은 제대로 돌리자

는 약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적분과 통계파트는 제외하고요.

매번 6평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바퀴를 아직도 못 돌리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은데, 그 학생들은 시간투자를 정말로 안 한 겁니다. 솔직히 하루에 3시간씩 3개월동안 꾸준히 하면 한 바퀴는 이미 끝나 있어요.

그리고, <자이스토리> 한 번 돌리면 <마플>, <마플> 한 번 돌리면 <마더텅검정책>... 이런 식으로 한 번 돌릴 때마다 다른 출판사의 기출문제집을 사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설이 출판사마다 다르니까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풀 때마다 해설을 볼 확률이 높으니, 다양한 해설을 외우는 것이 문제에 대한 시각을 넓힐 것입니다.

사실 원래 여러분들께서는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을 자세히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궁금하셨을 텐데, 이는 p.19부터 알려드립니다.

7. 모의고사로 된 기출문제집

[모의고사로 된 기출문제집]은 5월 이후부터 사서 공부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모의고사로 된 기출문제집]은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에 대한 설명은 p.25부터 시중에 파는 책들 이름과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방법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수능은 언제나 [모의고사로 된 기출문제집]이 아닌,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의 공부부터 탄탄히 돼야 승부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모의고사로 된 기출문제집]보다는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에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8. 교육청 문제만 있는 기출문제집

<너희들의기출문제 외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육청 기출문제만 있는.

평상시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과 같은 '평가원 기출문제가 주를 이루는 문제집'만 풀다가, 9평 보고 나서 9월 중순쯤에 이 문제집을 푸니까 새롭고 재밌더라고요. 물론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에도 교육청문제가 일부 수록되어 있던 했지만요.

그런데 이 문제집을 풀 때 느낀 것은, 교육청 문제들이 평가원 문제들보다 상대적으로 쉽긴 하지만, 교육청 문제들도 은근히 좋고 깔끔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수험생활 중 심심하거나 시간이 남을 때 풀었는데,

미2는 미분과 적분만, 기백은 전부 다, 확통은 통계부분만 세 분야 모두 1번씩만 풀었고,

10월 중순부터는 다시 다른 기출문제집으로 평가원 기출문제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책 구입에 관하여 가져야 할 습관] 하나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문제집을 사고 싶으면, 학원교재 및 프린트, 기출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푼 후 사라

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미적분과 관련된 학원교재와 기출문제집이 미분 중간까지 풀려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새끼가 <마약N제(오르비복스)>를 풀고 있어요. '우와, 저 책 겹표지부터 간지가 나는ㄷ-이때 제발 유혹당하지 말고, 학원교재와 기출문제집이라도 끝까지 제대로 다 풀고 반복하세요. 제발! 제발!! 제발!!! 그거 끝까지 다 안 풀었으면 <마약N제>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탐의 경우 9월 중순에 인강 쌤들이 그 해 EBS연계책이나 실모에서 중요(하다고 우기는ㄷ)한 포인트들을 모아둔 <파이널 100제>와 같은 책들이 나와요. 옆자리에 친구새끼가 그걸 풀고 있다, 근데 난 기출이 아직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뭐라고?!?! 기출이라도 제대로 돌리라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를 반드시 각인하세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당연히 4번째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을 돌려놓고, 5번째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을 돌리는 도중에 <너희들의기출문제 외전>을 같이 풀었습니다.

또한, 저는 <마약N제>는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상 얻어낼 수 있는 건 다른 책들과 거의 비슷한)한 <정석>, <한완수> 등등은 손도 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시다. 기출문제도 완벽하게 돌리지 않은 상황에서, '아, 한완수가 팀도 많고, 해설이 좋다고 하니, 나의 구세주가 될거야!! 빨리사야지!!'와 같은 착각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9. 학원월레모의고사

저는 이투스 월레모의고사를 매달 치렀(재중학원에 다녔기에 치러야만 했)습니다.

수학에 한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 수학 사설모의고사 점수는 신경쓰지 마세요.

저는 사설모의고사 수학 점수는 항상 70~90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재수와 3수 모두 수능 직전인 10월 월레모의고사에서 수학 점수가 80점대 초반이었어요.

반면에, 평가원모의고사 수학 점수는 19학년도 6월을 제외하고는 18학년도 6월부터 항상 92점 이상이었습니다.

"???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사설 모의고사의 문제들은 잘 못 푼다는 거 인정합니다. 첫 장부터 저는 타고난 수학적 머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라잖아요? 우리가 볼 시험은 수능이고, 수능은 평가원에서 출제합니다. 그러므로 평가원 문제부터 완벽히 독파하는 게 평가원시험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제가 재수 때 학기초부터 몇 개월 동안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푼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ㅋㅋ

여기서 이번에는 [학원월레모의고사를 볼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알려드릴게요.

'응, ㄷ까'

입니다.

늦어도 8월부터는 사설모의고사와 평가원은 문제의 스타일 자체가 괴리감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실 겁니다. 대성, 이투스, 종로, 메가스터디에서 만드는 모의고사는 조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그만큼 낮습니다. 물론 시○인재처럼 양질의 자료를 주는 학원에서 치르는 월레모의고사는 그 수준이 평가원과 그나마 비슷하지만, 그래도 평가원 모의고사에 견줄 수 있는 건 평가원 모의고사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월레모의고사를 보는 당일에는 점수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오히려 본인의 생리적·심리적 현상의 조절이나 머릿속에서 모의고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데에 신경을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 아침을 먹을지 말지,
- 도시락을 싸갈지 말지,
- 똥은 언제 쌀지,
- 국어모의고사 보기 전에 뭘 읽을지 말지,
- 국어모의고사 보기 직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렸는지,
- 수학 보기 전에 초콜릿을 먹을지 말지,
- 점심을 먹을지 말지,
- 점심시간에 쪽잠을 잘지 말지,
- 1시되기 10분 전부터 영어지문을 읽을지 말지,
- 한국사시간에 잘지 말지

등등을 말아죠.

그 날 받을 점수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아예 미련을 버리고, 관심 자체를 갖지 마세요. 어차피 잘 보면 자만을 하고, 못 보면 불필요한 걱정만 하게 됩니다. 또한, 재종학원에서 월레모의고사를 본 그다음 날에는 보통 선생님들께서 수업시간에 월레모의고사 현장해설을 해주실 텐데, [학원월레모의고사 현장해설강의를 들을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응, ㄷ까’

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나 학원월레모의고사 현장해설강의를 들을 때에는 선생님에 대한 예의상 듣긴 해야 할 겁니다ㅋㅋㅋ

어쨌든 우선으로 파야 하는 건 평가원 문제이지, 중간에 죽대 없이 사실 따위한테 큰 신경을 두면 안 됩니다.

월레모의고사에서는 틀린 문제만 왜 틀렸는지 답지를 보면서 빠르게 훑어내는 정도로만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월레모의고사를 막 새로 구해서 처음부터 다시 풀거나 21 30을 따로 오려서 오답노트를 만든다는 등의 별짓은 하지 마시고요.

결론은 월레모의고사따위 때문에 순수자습시간을 1시간 이상 할애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월레모의고사를 보는 날들 중 수학시험을 보기 직전에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세 가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마음가짐은,

3월 학평, 4월 학평, 그리고 학원에서 보는 3,4,5월모의고사를 볼 때,

일단 2130은 관심사 밖으로 두자

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6평 전까지는 대부분 2130에 덤빌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2130은 6평 이후부터 생각하고, 6평 전까지는 나머지 28문제를 완벽히 푸는 것에 집중하자고요.

‘2130 손대는 시간에 나머지 3,4점짜리 쉬운 문제를 빠른시간에 풀자’

‘2130을 제외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차피 수학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마음을 완전히 비우시고,

2130은 **시간이 만약 남는다면 여유를 갖고 푸는 어려운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맞으면 맞는거고, 틀리면 틀리는거고.

두 번째 마음가짐은,

28문제를 풀 때, 풀어서 답을 한 번 구한 문제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서 풀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가끔씩 답을 이미 구했지만 혹시나 계산실수 했을까 봐 자신이 쓴 풀이를 다시 보는 경우가 생길 텐데,

저는 21번과 30번을 제외한 28문제는 검산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완벽하게 풀자고 다짐했습니다. 미련이 없게끔요.

수능 때 이미 답을 고른 문제에 미련이 남으면 멘탈이 털릴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렇게 습관을 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가짐은,

모의고사 한 세트를 풀릴 때 걸리는 총 시간은 신경쓰지 말자

입니다.

여러분들은 6평 전까지는 아직 실력도 충분하지 않고 개념이 완벽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일 확률이 높으므로, 28문제만 푸는데 시간을 다 쓸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9월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평가원시험에서 28문제를 푸는데 60분 정도 걸립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간은 단축이 될 것이니, **2~6월에는 28문제부터 완벽히 잘 다지는 것에만 집중합시다.**

참고로 제가 수험생 때 시험을 봤을 때는, 28문제를 다 풀기 전까지는 21번이랑 30번은 쳐다보지 않아서,

시험시간에 21번과 30번에 얼마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는지는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천차만별이어서요.

28문제 다 푸는데 걸린 시간만 따지면 어떨 때는 60분, 어떨 때는 80분, 어떨 때는 100분 다 쓸 때도 있었으니,

28문제를 다 푼 뒤 30번을 10분 만에 풀고 21번은 찍고 틀려서 96점을 받은 날도 있었고,

28문제 때문에 2130은 아예 건들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28문제를 다 풀었는데 40분 정도 남았을 때는, 남은 시간에 30번부터 고적적이고, 못 풀겠다 싶으면 21번으로 넘어갔습니다. 2130중에서 30을 먼저 푼 이유는.. 21은 나머지 답 개수로 찍을 수라도 있잖아요ㅋㅋ 시험은 전략적으로 보자구요~. 그러나 모의고사 점수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수능 때 떨지 않도록 이러한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는 목적에서 30을 먼저 풀고 21은 찍는 방식을 연습한 것입니다. **모의고사 점수는 일체 신경쓰지 않는거로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월레모의고사를 보는 날들 중 수학시험을 보는 순간에 습관화한 행위]가 하나 있는데,

2130문제를 제외하고 3,4월교육청, 3,4,5월학원모의고사를 푸는 도중에 [체감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나 [생각을 잘못해서 시험지에 쓴 풀이과정 지우고 다시 푼 문제]에다가 **바로바로 문제번호 위에다가 큼지막하게 별표를 쳤습니다.** 시험치는 도중예요. 그리고 답지 받아서 채점을 한 후 별표 친 문제들만 모아본 뒤 그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파악하고(사실 파악이라기보다는 딱 문제들을 보면 이건 삼각함수문제다, 도형의극한문제다, 정적분문제다 등등 바로바로 알잖아요), **그 유형만 기출문제집(마플)에서 찾고 그 유형의 문제만 겁나 풀어냈습니다.** 기출문제집에서 그 부분이 이미 풀려있든 안 풀려있든. 이미 풀려있으면 "이거 내가 푼 유형인데 왜 틀린거지? 개념을 까먹었나??" 이러면서요.

수학모의고사를 치를 때, 문제를 푸는 도중에는 문제를 푸는 데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푼 문제]나 [생각이 잘 안 나다가 얼떨결에 결국 푼 문제]를 별표도 안한 채로 그냥 다음 문제 풀고, 답지 받아서 채점할 때 그냥 동그라미 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본인이 실모를 푸는 도중에 저처럼 **짹짹한 문제는 바로바로 별표 쳐야겠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본인이 약한 유형들을 쉽게 찾고 그에 대한 훈련을 수 있고, 그 약한 유형들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시험문제들을 다 푸는데 걸리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테고요. 그리고 자습할 때는 제가 위에 적었듯이 10시 이후나 주말 저녁에 한 문제 당 15~40분 정도 투자했습니다.

10. 시중에 파는 실전모의고사(봉투모의고사) 및 다양한 n제

실전모의고사들은 7월 이후부터, 즉 수능완성이 출판되는 시기에 시중에 하나둘씩 나옵니다. n제들은 뭐 항상 배치돼 있고요. 동네서점에서 파는 거 아무거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사긴 하되, 실전모의고사를 풀고 난 후 순수자습시간에는 **학원월례모의고사와 동일취급 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원월례모의고사와 실전모의고사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학원월례모의고사는 [기출도 얼마 돌리지 않았고 수학개념이 완벽하게 다져지지 않은 시기], 즉 3,4,5,6월에도 본다는 거고, 실전모의고사는 [기출도 어느정도 돌렸고 수학개념이 어느정도 다져진 시기], 즉 7월 이후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3~6월, 늦으면 8월까지의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는 시기], [기출문제를 과목별로 최소 한 번 돌리는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실전연습은 빠르면 9월이고, 보통 10월부터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가모의고사(자기 혼자서 자습시간에 모의고사 구해서 치르는거)를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당연히 자가모의고사를 치르는 목표는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돼야 하는거지, [그 모의고사에서 꿀정보를 얻기 위해서 치르자]는 마음가짐은 지양하세요. **정보의 원천은 언제나 평가원문제라는 마음가짐을 잃지 맙시다.**

돌이켜보면, **제가 결국에 재수 1년동안 푼 수학문제는 평가원문제 전부, 교육청문제 일부, 학원교재 및 프린트, 학원월례모의고사. 총 4가지밖에 없네요.** 시중에 파는 사설모의고사나 n제는 1도 풀지 않았습디다. 기출을 체화하기 바빴고 학원교재 및 프린트에 이미 비기출 문제들이 꽤 있었으니, 사설모의고사나 n제를 건들 생각은 들지도 않았죠. 학원월례모의고사도 따지고 보면 아예 다 비기출이거나 한두 문제만 기출 베껴서 변형시킨 건데요 뭐. 사실은 사설모의고사나 n제를 따로 구입해서 건들 시간이 나질 않았죠.

참고로 학원월례모의고사의 문제들은 대부분 시험시간에만 푼 거고, 몰라서 틀렸거나 맞았더라도 헛갈린 문제들만 자습시간에 다시 10분 이내로 답지를 보면서 실수한 부분을 찾고 이해하고 풀어냈지, 나머지 맞은 문제들이나 단순한 실수로 틀린 문제들은 다시 풀지 않았습디다.

3수 때도 마찬가지로 방법을 유지하면서 수학공부를 했는데, **3수 때는 사실 사설모의고사나 n제에 투자를 할 시간이 충분히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지 않은 쪽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3수 때만큼은 사설이나 n제에 도전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언제나 재수 때 **한동안 기출만 찢던 기간이 있었기에 실력이 올랐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실력이 이미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계속 기출을 고집할지, 아니면 사설에 도전할지는 공부하는 사람 선택인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가 재중학원에 다니는 재수생·n수생의 수학 공부와 관련된 10가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뒤에는 훨씬 깊이 있고 구체적인 공부법과 팁들이 있으니,
잠시 쉴 분들은 쉰 뒤에 계속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 수학교육을 할 때만큼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및 수학을 공부하는 전체적인 방법 >

이제부터는 제가 평상시 수학문제를 풀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문제들을 풀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출문제만이라도 대부분 외운 자]들의 입장에서 한 평가원 모의고사 세트(또는 한 수능 모의고사 세트)의 문제들이 어떻게 느껴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번과 30번을 제외하고는 계산실수나 조건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를 빼고는 다 맞아야 하는 문제들이구나

라고 느껴져야 합니다.

20번과 29번은 나머지 문제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이지, 시험장에서는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수능에서 1등급이 나오고요. 2017학년도 수능부터 4년 동안 수학기형 1등급 컷은 계속 92였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마음가짐은

2130은 일단 버리고, 나머지 28문제부터 다 맞추자는 식으로 공부를 하자

이었습니다.

저는 수학머리가 보통(고3때 매번 수학모의고사 50분 안에 96점/100점 맞는 애들이 아니면 그냥 보통머리...)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 보는 2130킬러에 덤빈다고 해도 답지가 없으면 절대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의 2130킬러문제들은 관심사 외였습니다. 기출2130이든, 사설2130이든요.

6월 이전의 기간에는 평상시에 2130에 시간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이외의 문제들로 다양한 유형을 익히고,

3,4점짜리 중-상문제를 빠른시간에 풀어내는 연습을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수학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물론 이 기간에 2130문제를 몇 개 풀어보긴 했지만, 마음가짐만큼은 그렇게 뒀다는 겁니다.

2130은 주말에만 약 세네 문제만 도전만 하는 정도? "안 풀리면 다음주에 한 번 더 보지 뭐" 이런 식으로요.

즉, 엄청 어려운 킬러문제들은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한 것입니다.

다음, 그 어떠한 수학문제(평가원문제든, 교육청문제든, 학원교재문제든, 사설모의고사문제든...)는 이 세가지 유형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형1)

해설지 없이 문제를 푼 뒤 뒤에 있는 답만 확인하고 채점하고 맞으면 그냥 넘어가는 문제

= 내가 느끼기에 쉬운 문제

= 단순 계산용 문제

= 20212930이 아닌 문제 대부분(물론 2029도 어려운 거 있고, 2130도 쉬운 거 있음)

= 보통 한번에 잘 풀면 1~3분 걸리고 실수하거나 착각하면 5~6분정도 걸리는 문제

유형2)

해설지 없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데 고민을 좀 해야 풀리고 시간이 좀 소요되는 문제

= 내가 느끼기에 어려운 문제

= 내가 느끼기에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는 문제

= 유연한 사고가 어느 정도 필요한 문제

= 작년까지 기출되었던 평가원 20,21,29,30 수준의 문제 + 14~19,26~28 사이에 있는 한두 번씩 뇌절오는 문제

= 답지안보면 4~5분이상걸리는문제

유형3)

문제 읽고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는 풀었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그다음 단계의 풀이를 못 생각해낼 것 같아서 결국 답지의 해설을 확인하는 문제
또는

처음부터 손도 못 대는 문제

또는

답지 확인하면 '아, 그러네. 하 근데 이 생각을 어케 하지. 이해는 됨' 하거나 '뭔 개소리냐 사비' 하는 문제

또는

올해 처음 보는 평가원/교육청/사설모의 21,30번 문제 대부분

제가 문제를 풀 때는,

유형1)이다 싶으면 그냥 풀고 답만 확인하고 채점했고,

유형2)이다 싶으면 문제를 풀었든 못 풀었든 답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해설을 되씹었습니다.

참고로,

평가원이나 교육청의 2130은 많이 반복해서 풀어야 하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절로 많이 풀게 될 것이므로,

시간이 갈수록 이 문제들이 익숙해지기 마련이니 처음에 이 문제들이 유형3)으로 느껴졌다면 나중에는 유형2) 정도로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학생들한테는 시간이 지나도 평가원·교육청의 2130 여전히 유형3)으로 느껴지는 것들도 있겠죠ㅋㅋ

유형3)이다 싶으면 고민하는 시간을 절대 문제당 10분 이상 되게 하지 않았고, **하루 일정이 끝나고 집에 가거나 주말에 시간이 많을 때 모아서 풀었습니다.**

유형3)과 같은 문제들의 실질적 예시들로는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프린트로 나눠주는 사설킬러문제들]이나, [인강책이나 n제의 자작문제들 중 저자가 2130 나이도라고 언급한 문제들]이나, [7월부터 나오는 사설모의고사의 2130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형3)의 문제들을 풀다 보면 '풀다가 막히게 되는 상황' 또는 '안 풀리니까 어쩌다 보니 멍때리고 있게 되는 상황'이 쉽게 발생했기 때문에, 귀중한 자습시간에 붙잡고 푸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하여, [자습시간에 하는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루일정이 다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푸는 어려운 퀴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형3)같은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옆에 답지가 있었고**, 10분이 넘으면 바로 답지보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저는 평일 자습시간에는 거의 유형1), 유형2) 정도의 문제만 풀 것 같아요. 집도착하고 잠자기전까지의 40분 정도는 유형3)같은 문제 고민하고 푸는데 쓰고요(일주일에 두세번정도만).

아까 말했듯이 2130을 잡기 전에 나머지 28문제를 먼저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2130을 손대기 전에 나머지 문제를 풀 때 걸리는 시간부터 줄여나가자는 말씀. 사상누각인 것처럼 아랫단계가 돼야 윗단계가 되잖아요?

아랫단계가 완벽하기 전까지는 윗단계는 쳐다보지 말자

이 마음가짐이 제 재수생활 9개월 동안의 마음가짐 중 제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문제집을 살 때도 "여러 책을 한 번에 사지 말고, 지금 풀고 있는 이 책 끝낼 때까지는 서점은 절대로 안 가겠다" 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2130을 빨리빨리 풀어나가고 싶고 정복하고 싶다는, 윗단계에 대한 '욕심'이 공부의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2130을 제외한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만 제대로 파악하고 인지한다면, 시간을 낭비하거나 실수해서 틀릴 일은 절대로 없다

는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형의 극한 문제에서 원이 주어졌을 때, 많은 문제들은 그 원의 반지름을 '1'로 줍니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의 발문에 원의 반지름이 '2'라고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문을 대충 읽고 평상시 습관처럼 원의 반지름을 계속 1로 두고 푼다면... 보기에 답이 없어 시간을 지체하거나,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발생 확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수열 문제에서 a_6 을 구해야 하는데 6을 8로 잘못 봐서 a_8 로 구했다면...

객관식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주관식이면 4점 그냥 나가리 ㅏㅏㅏ...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대참사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문제에 쓰여진 한국말이나 수식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해한 후 본격적인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 발문을 건성건성 읽지 않고 제대로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등급이 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중학원에 다니는 학생**을 기준으로 p.10에서 언급한 [수학 공부와 관련된 것들]을 학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10.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 | | |
|---------------|------------------------------------|
| 1. 인강 | 6.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 |
| 2. 학원수업 | 7. 모의고사 형태로 된 기출문제집 |
| 3. 개념서 | 8. 교육청 문제만 있는 기출문제집 |
| 4. 수학공식책 | 9. 학원월례모의고사 |
| 5. 학원교재 & 프린트 | 10. 시중에 파는 실전모의고사(봉투모의고사) 및 다양한 n제 |

우선, 보통 재중학원수업은 2월~6월까지 학원에서 과목별로 한 바퀴 개념을 돌려주는데(제가 다닌 재중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학원에서 진도를 특정 기간마다 어디까지 나가는지 미리미리 파악을 해두셔야 합니다.

보통은 수학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 진도를 언제 어디까지 나갈 것인지를 알려줄 테지만, **그러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시니,**

매주 수학선생님께 "**진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요?**" 또는 "**연간 커리큘럼을 작성한 표 같은 게 있나요?**"라고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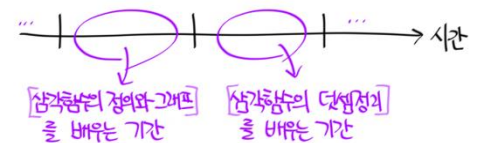
다음, 이걸 예시를 들어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이 3월쯤에 재중학원에서 수1시간에 오른쪽처럼 [삼각함수의 정의와 그래프]와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순으로 배우는 기간이 있고,

오늘 수학선생님께서 [삼각함수의 정의와 그래프]의 첫 수업을 했다고 칩시다.

이때 여러분들은 그다음 기간인 [삼각함수의 덧셈정리]의 첫 수업을 하기 전까지 서둘러



A. [3.개념서]의 [삼각함수의 정의와 그래프]에 해당하는 개념설명을 다시 확인한 뒤 문제를 모두 다 풀고 채점하고,

B. [5.학원교재&프린트]의 [삼각함수의 정의와 그래프]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다 풀고 채점하고,

C. [6.유형별로된기출문제집]의 [삼각함수의 정의와 그래프]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채점합니다.

간단하죠? 이처럼 **A.→B.→C.** 과정을 마치면 [삼각함수의 정의와 그래프]에는 도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반복을 통한 체화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제 경험상 적어도 1개월은 기억에 남습니다. 같은 내용을 3번 이상 반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원인 [삼각함수의 덧셈정리]에 대한 수업들을 들으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때, [삼각함수의 정의와 그래프]를 배우는 기간 중에 **A.→B.→C.**를 다 마쳤으면, 남은 기간동안 미리미리 다음 단원인 [삼각함수의 덧셈정리]의 **A.→B.→C.**를 시작하거나, [삼각함수의 정의와 그래프] 또는 그 이전에 배운 것들 중에서 막힌 것 위주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밀리는 것입니다. **학원 진도보다 본인의 진도가 뒤쳐지게끔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인강도 훨씬 좋은 게 많은데 재중학원을 왜 굳이 다니겠습니까. p.10에서 언급했듯, 재중학원은 **본인 페이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히 다니되 열심히 할 것들(A.→B.→C.)은 제때 끝내면서 다니세요.**

6평전까지는 욕심내지 말고 수1·미적분·확통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공부하면 이론적으로는 3월학평과 4월학평 점수는 잘 안 나올 테지만(잘 나오더라도 신경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위 예시처럼만 했다면 [삼각함수의 정의와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잘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6월까지는 모의고사 성적은 기대조차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조용히 계속 칼을 가세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완벽하게 공부하세요. **그러면 9월 이후부터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쯤 되면, 제 경험상, 하루에 수학공부를 2시간만 해도 성과 감각이 유지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과목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큰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큰그림을 그리세요.** 3월학평, 4월학평 전날에 시험 잘 보고 싶은 마음에 자가모의고사같은거 하지 말구요. 모의고사 잘 봐봤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실력이 쌓이면 성적은 저절로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기출을 반복하는 습관부터 들이고, 기본실력부터 키우세요.**

저는 현역수능 때 4였지만, 이렇게 나를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재수6평때 턱걸이 1이 나왔습니다. 9월에는 안정적 1이 나왔고, 수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어차피 수능은 11월, 한참 남았어요. 이렇게 [2.3.5.6.]을 순서대로 병행해서 6월까지 수1과 미적분을 최소 한 바퀴 돌리면, 본인은 정말 강력한 무기를 만든 거나 다름없어요. **반복으로 다져진 밑바탕은 후반부에 위대한 힘을 나타내거든요.**

< 6평 이전까지 [유형별로 된 수학기출문제집]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

이번 글이 드디어 "지금부터 6평까지 [유형별로 된 수학기출문제집]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이 글은

- A.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점 5가지
- B. 6평전까지 [유형별로 된 수학기출문제집]을 공부하는 자세한 방법
- C. 수학기출 문제 하나하나를 풀 때 들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습관들 2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A.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점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글에서 언급하는 '수학기출문제집'은 시중의 서점에서 파는 [유형별로 돼 있는 수학기출문제집]을 의미하고, 그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마플>, <자이스토리>, <마더텅검정책>, <빅데이터>, <기출의고백>, <너희들의기출문제>, <미래로>, <기출N제4점집중>, <씨리얼>, <수학의 명작>, <이동훈 기출문제집> 등등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우진T의 <수분감>, 양승진T의 <기출코드> 등의 인강교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교재들은 3점짜리나 쉬운 4점짜리 문항들을 수록하지 않은 교재들임에 따라 역대 기출된 모든 유형이 수록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유형들을 잘 묶어놓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베이스를 확실히 갖추기 위해서는 3점짜리와 쉬운 4점짜리 문제들도 반드시 평상시에 함께 풀어야 합니다.

둘째,

수학기출은 6평 2주 전까지는 욕심을 버리고 [기본개념이나 기출문제풀이를 해주는 인강 또는 학원수업]과 [개념서], 그리고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으로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BS수특, 오르비책들, 사설모의고사들 등은 기출문제 정복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나서!!

셋째,

수학기출은 6월평가원모의고사 2주 전부터는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과 [모의고사로 된 기출문제집]을 병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p.12에서 말씀드렸듯, 6평 2주 전부터 해야 하는 [모의고사로 된 기출문제집]을 공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p.25부터 알려드립니다.

넷째,

6평전까지는 확통의 통계부분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통계부분은 아무리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이라도,

하루에 1시간씩 3주만 투자하면 최소 한 바퀴는 끝냅니다.

6평 전의 시기에 통계부분을 한 번 돌려놓아봤자,

수험생 대부분은 6평 한 달 전부터는 6평 시험범위에만 해당하는 단원들만 공부하는 습성이 있어,

한 달 동안 통계부분을 공부하지 않으므로 자연스럽게 통계부분의 내용과 공식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어차피 지금은 수1와 미적분 공부 때문에 바쁠 겁니다.

통계는 6평 이후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학은 원하는 성적이 꾸준히 나올 때까지는 하루에 순수자습시간(학교/학원수업시간 제외)으로 3시간 이상을 하세요.

저는 [모의고사(학원이든 교육청이든 평가원이든) 보는 날]과 [정말 아픈 날]을 제외하고는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학년도 수능 전날까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수학공부를 했어요.

일반적인 날에는 학원에서의 쉬는 시간과 오후 자습시간, 그리고 집에서의 40분 정도 합하면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3시간 하자!" 하면서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 하루 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저절로 3시간 정도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9개월 동안 삼일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이 있을 텐데, 저는 이런 날에는 6시까지만 공부했고 나머지는 쉬거나 운동하거나 영화를 봤어요. 그래도 이런 날에도 수학은 2시간 이상씩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5가지 점들이었습니다.

B.

이제부터는 **제가 6평까지 [유형별로 된 수학기출문제집]을 어떤 방식으로 회독을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두 가지 관점으로 6평 전까지 기출문제집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형식적인 것이고, **두 번째 관점**이 진짜입니다.

첫 번째 관점

첫 번째 관점은 [6평 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출문제집을 총 몇 권 풀었나?]의 관점입니다.

6평 전까지는 각 과목(미2, 확통, 기백) 당 **맥시멈 두 권**입니다. 즉 총 6권. 그 이상은 돌리기 힘들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관점으로 6평전까지 기출문제집을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관점

기출문제집을 풀어보시면,

[미2·기백·확통을 구성하는 소단원들]은 대충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소단원들로 구성되었다고 느낄 겁니다.

소단원A)

문제들을 한 번 쪽 풀어봤더니, 그 문제집을 끝까지 다 풀기 전까지는 절대로 다시 보지 않아도, 다음에 똑같은 문제들을 풀면 풀이법들이 바로 기억날 것 같은... 그런 문제들로 구성된 소단원

소단원B)

문제들을 한 번 쪽 풀어봤더니, 어느 정도 [공식이나 전형적인 풀이과정만 제대로 기억이 나면 쉬운 편인데, 공식이나 풀이법을 까먹으면 막히는 문제들]로 구성된 소단원

소단원C)

문제들을 한 번 쪽 풀어봤더니, 문제들이 다소 어렵거나 분량이 많게 느껴지고, 몇몇 문제들에서 계산할 때 부분부분 막히고, 자연스럽게 풀이과정이 생각나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그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도 그 문제집을 끝까지 다 풀기 전에는 다시 한번 더 풀어봐야 할 것 같은, 완벽하게 체화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된, 그런 소단원ㅋㅋ

p.16에 언급한 **유형1), 유형2), 유형3)**으로 문제들을 나눈 것과 비슷하죠?

이때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수험가형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소단원들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수1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로그의 뜻과 성질, 상용로그, 지수로 뜻과 그래프, 지수로 그 부등식
일반과 호도법,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방정식과 부등식.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삼각형의 넓이
등차수열, 등비수열, 수열의 합, 합기호, 여러가지 수열의 합, 수학적 귀납법.

◆수2

함수의 극한과 연속, 함수의 우극한과 좌극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의 활용.
평균변화율과 미분계수, 미분계수의 의미와 연속성, 도함수, 접선의 방정식, 평균값의 정리, 함수의 증가와 감소, 함수의 극대와 극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함수의 최대와 최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
함수의 미분가능성, 속도와 가속도.
부정적분, 다항함수의 부정적분, 정적분,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속도와 거리.

◆미적분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등비수열의 극한, 급수, 등비급수, 등비급수의 활용.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삼각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미분.
함수의 몫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음함수역함수의 미분법, 이계도함수.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그래프,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 속도와 가속도.
여러가지 함수의 적분,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 넓이, 부피, 속도와 거리.

◆확통

순열/조합, 원순열, 중복순열/조합, 분할, 함수의 개수, 수형도, 이항정리.
시행과 사건, 확률의 뜻, 확률의 덧셈정리, 여사건의 확률, 조건부 확률, 경우의 수 or 덧셈정리 곱셈정리로 구하는 확률, 사건의 독립과 종속, 독립시행의 확률.
이산확률변수/연속확률변수,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이산확률변수 $aX+b$ 의 평균/분산/표준편차, 이항분포, 정규분포,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기백

포물선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 이차곡선의 평행이동, 이차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벡터, 벡터의 덧셈과 뺄셈, 벡터의 실수배와 평행, 위치벡터와 내분점외분점, 평면벡터의 성분, 평면벡터의 내적, 직선과 원의 방정식, 내적의 최대최소, 두 평면벡터가 이루는 각,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위치관계, 삼수선의 정리, 정사영,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구의 방정식

언제든지 수험생마다 개인차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험생마다 [이들 소단원들 중 어떤 소단원이 소단원A), 소단원B), 소단원C)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다를겁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집의 문제들을 풀면서, 6평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소단원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수1
 - 지수로그덧과그래프, 지수로그부등식, 지수로그극한, 지수로그도함수.
 - 일방각과호도법, 삼각함수의정의, 삼각함수의그래프, 삼각방정식과부등식, 삼각함수의덧셈정리/반각/배각공식, 삼각함수의합성, 삼각함수및도형의극한, 삼각함수의도함수.
 - 등차수열, 등비수열, 수열의 합, 수학적 귀납법. (참고로 제가 수험생이었을 때는 수열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고1 때 배운 내용을 상기하여 분류했습니다)
- ◆미적분
 - 함수의몹의미분법, 합성함수의미분법, 역함수의미분법, 접선의방정식, 함수의증가와감소, 함수의극대와극소, 도함수/이계도함수, 변곡점, 함수의그래프의개형, 함수의최대와최소, 방정식과부등식에서의활용, 함수의미분가능성.
- ◆확통
 - 순열/조합, 원순열, 중복순열/조합, 분할, 함수의개수, 수형도, 이항정리.
 - 시행과사건, 확률의뜻, 확률의덧셈정리, 경우의수or덧셈정리곱셈정리로구하는확률, 조건부확률, 사건의독립과종속.
- ◆기백
 - 포물선의방정식, 타원의방정식, 쌍곡선의방정식, 이차곡선의평행이동.
 - 음함수의미분법, 이차곡선의접선의방정식, 매개변수로나타낸함수의미분법.
 - 벡터의덧셈과뺄셈, 벡터의실수배와평행, 위치벡터와내분점외분점, 평면벡터의성분, 평면벡터의내적, 내적의최대최소, 두평면벡터가이루는각, 직선의방정식, 원의방정식, 속도와가속도, 점의위치와이동거리(곡선의길이공식).
 - 평면의결정조건, 직선과평면의위치관계, 직선과평면의수직, 삼수선의정리/이면각/정사영등등을활용한공간도형문제.
 - 공간좌표, 두점사이의거리, 선분의내분점과외분점, 구.

즉,
파란색 소단원들은 **소단원A)**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고,
빨간색 소단원들은 **소단원B)**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고,
보라색 소단원들은 **소단원C)**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소단원A), 소단원B), 소단원C)에 해당하는 소단원들이 뭔지 감이 잡히지 않은 분들께서는 제가 분류한 대로 생각하셔도 문제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각각의 소단원들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1회독을 할 때, **소단원A)**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소단원에 포함된 문제들은 한 번 풀고 다시 풀지 않았습니니다.
- 1회독을 할 때, **소단원B)**와 **소단원C)**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소단원에 포함된 문제들은 한 번 풀고,
보라색 볼펜으로 덜 익숙한 공식, 덜 익숙한 풀이방법, 주의해야 할 점 등등을 문제 위에다가 바로바로 적었습니다.
- 이때 덜 익숙한 풀이방법은 그대로 해설지를 옮겨적은 게 아니라, **한국말로 요약해서, 저에게 직접 설명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제 말투로 적었습니다.**
- 이때 덜 익숙한 공식, 덜 익숙한 풀이방법, 주의해야 할 점 등등에 대한 예를 들자면,
 'log 안의 덩어리나 ln안의 덩어리는 반드시 0보다 크다고!! log나 ln 보는 순간 닥치고 진수조건부터 생각나야돼!!'
 '삼각함수의 극한문제에서 'cos제곱-1'이 나오면 '-sin제곱'이야. 무의식적으로 'sin제곱'이라고 쓰면 안돼!!'
 'cos을 미분하면 'sin'이 아니라 '-sin'이지 이 멍청아!!'
 '삼각형 넓이 물어보는 거 나오면 무조건 1/2곱하는 거 잊지 말고!!'
 '삼각함수를 합성할 때, 귀찮더라도 sin알파의 값과 cos알파의 값은 반드시 적어놓자'
 'sin값을 알면, cos값의 절댓값도 반드시 알 수 있는거야!! 반대로도 마찬가지'
 '시그마가 나오면, 시그마 뒤에 있는 식을 변형하려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첫 번째 항부터 일일이 다 써보자'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삼각함수로 나타낼 때는, theta가 어느 각에 있는지, 직각은 어디 있는지 인식 잘해라'
 '도형의 극한 문제에서는, 주어진 길이가 원의 지름인지 반지름인지 정확히 인지해!!'
 '아니 어떻게 0을 6으로 착각하냐고;;; 글씨 쓸 때 똑바로 알아볼 수 있게 써라'
 '속미분하는거 제발 까먹지마라'
 "'cos+1'에다가 루트를 씌운 함수의 그래프는 미분불가능한 지점들이 있는데, 'cos+k'에다가 루트를 씌운 함수(단,k>1)의 그래프는 미분불가능한 점이 없네'
 '몹의 미분법 공식 또 까먹었냐!? 지엑스분의에프엑스 미분하면 지엑스제곱분의에프엑스미분곱하기지엑스그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왜 까먹냐고!?!? 왜 플러스야 마이너스지!!!!'
 '적분을 하면 상수 C를 써야지 멍청아 또 빼먹냐?!?!'
 '적분구간에 미지수가 있으면, 1.상수를 대입하거나, 2.미분을 해'
 'f(k-x)를 a부터b까지 적분한다고 하면, k-x를 t로 치환할 생각을 해야지!! f안에 있는 식이 맘에 안 들면 간단하게!!'

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저만의 흔적을 남긴 뒤**에는, 평상시 수학자습을 시작하기 직전에 저만의 글귀들을 한 번씩 쪽 훑어보면서 문제의 메커니즘을 다시 상기시키고 외우고 체화시키려 했습니다.

1회독을 할 때,

소단원B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소단원에 포함된 문제들은 **감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쯤 풀어본 문제들을 '훑어보아' 기억을 다시 살렸고, 저만의 글귀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극히 일부의 문제만 직접 다시 이면지에다가 따로 풀었습니다.

소단원C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소단원에 포함된 문제들은 **대부분을, 감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쯤, 다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이면지에다가 따로 풀어보고 더 좋은 생각이나 주의할 점이 생각나면 저만의 글귀들을 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회독을 할 때 모든 문제들을 한 번씩만 푸 게 아니라,

몇몇 소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5번 이상 다시 훑어보거나 풀어본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생각 없이 그냥 진도만 빼지 않았고,

풀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싶은 문제들이나 유형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가서 복습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2기출문제집과 기백기출문제집은 1회독을 하는 데 **시간이 정말로 오래 걸렸습니다.**

6평 전까지는 하루에 5시간 이상 수학문제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중순쯤에 <마플> 1회독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책을 보면, **소단원B**와 **소단원C**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한 페이지마다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보라색 글씨**가 적혀있습니다.

2회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역시나 **보라색 글씨** 천지입니다. 1회독용 책보다는 덜하지만요.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을 공부하면,

5월에서 7월 사이에, 언젠가부터는 소단원B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소단원A에 해당하는 문제들로, 소단원C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소단원A에 해당하는 문제들로 느껴질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 공부방법은 만인에게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공부방법이 평가원 수학가형을 6번 연속으로 1등급을 받아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연세대학교를 수리논술로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관점으로 6평 전까지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을 풀어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C.

지금부터는 **수학문제 하나하나를 풀 때 본인에게 들이면 좋다고 생각하는 습관들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습관1

여러분들 중에서 은근히 **'그림이 주어진 문제'들을 다시 풀 때 반드시 전에 풀었던 흔적들을 그림에서 지워서 다시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1의 도형의 극한 문제들]이나 [기백의 이차곡선과 공간도형 문제들]에서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저번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는데, 저번에 풀었던 흔적들을 조금이라도 참고하게 되면, 그 흔적에만 생각의 틀이 박혀서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아'

와 같은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도 문제를 풀면서 이 불안감(?)이 드는 게 비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1의 도형의 극한 문제들]이나 [기백의 이차곡선과 공간도형 문제들]에서 만큼은,

- 문제를 다시 풀려고 이미 쓰여 있는 풀이를 지우기 전에 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 애초에 [도형의 극한 문제들]과 [기백의 공간도형 문제들]이라도 미리 복사를 따로 하거나,
 - 애초에 학원선생님들이나 학교선생님에게 그 부분만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 등등... **그림이 있는 문제들만큼은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끔 미리 처리합니다.**

그런 다음,

[1회독을 할 때 첫 번째로 푼 풀이방법]과 [1회독을 할 때 두 번째로 푼 풀이방법]을 비교하고,

만약 풀이법이 다르다면, 1회독용 문제집에다가 **보라색 볼펜으로 '또 다른 풀이방법'**이라고 써 놓고, 그 풀이방법의 포인트들을 나만의 언어로 요약해서 적으세요.

2회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시구요.

이것이 **습관1**입니다.

이때, '그림이 주어진 문제'들을 1회독 하는 도중에 두 번째 이상으로 푸는 것들은 굳이 지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지우더라도, **이전에 내가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지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출문제들은 어차피 반복해서 푸는 문제들이지만,

내가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지 확인하면서 자가진단을 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2

문제를 푸는 도중에 막혀서 지금까지 쓴 풀이과정을 그냥 짝 지우시고 다시 풀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덩달아,

문제를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답을 확인했더니 틀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중간에 사소한 계산실수를 했거나 뭔가에 대한 인식을 살짝 잘못했을 뿐인데, 그걸 찾기 귀찮아서 지금까지 쓴 풀이과정을 전부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풀거나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

안됩니다.

지금까지 썼던 풀이과정을 아무 생각 없이 지우지 마세요.

본인이 왜 막혔는지 지금까지 쓴 풀이를 충분히, 꼼꼼히 검토한 뒤에 지울지 말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귀찮더라도 반드시 다시 짚어나가는 습관이 형성돼야 하고, 이 과정이 없으면 발전은 그만큼 더뎠습니다.

이것이 **습관2**입니다.

[틀린 문제들에 한하여, 본인이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 쓴 풀이과정을 한 번 더 따져보아 올바른 정답까지 도출해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은 이유는, **풀이 중간에 계산실수를 했는지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자신이 쓴 풀이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내 풀이는 반드시 맞아. 지금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어딘가에서 실수를 했을 뿐이야'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이 습관은 항상 들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본인의 풀이에 확신이 있어야 시험을 칠 때도 쉬운 문제에서 막힐 때 침착하게 풀이과정을 다시 살펴보거나 과감하게 그 쉬운 문제를 건너뛰고 안정된 마음으로 다시 그 문제로 돌아오든지 등등의 **멘탈관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반 이상이 자신감인데, **자신감도 좋은 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수학문제를 풀 때 들이면 좋은 습관 중 두 가지였고,

< 6 평 이전까지 [유형별로 된 수학기출문제집]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6평 전까지 [유형별 기출문제집]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드릴 말씀은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유형별 기출문제집]에는 본인이 공부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풀이해주는 해설지도 있지만,

그 문제들과 해설지를 어떻게 활용해 나가는지는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기출문제집을 생각 없이 그냥 진도만 빼고 문제만 푸는 용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제발이개췌이야.),

어떻게 하면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게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정도의 생각은 평상시에 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 6평 2주 전부터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 >

이번 글은 6평이 몇 주 남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하는 방법 말고도,

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대비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학기 초부터 6평 2~3주 전까지는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을 주로 공부를 해왔을 테지만,

6평 2~3주 전부터 6평 전날까지 해야 하는 공부는 살짝 다릅니다.

“네? 6평을 대비할 때 공부법을 평상시와 바꿔서 대비하는 이유가 있나요 swk님?

그냥 평상시 자습할 때처럼 [유형별 기출문제집]으로 대비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제가 p.12에서 말씀드렸듯,

[유형별 기출문제집]의 용도는 [특정 개념을 골라 다시거나 약한 유형을 집중해서 보완하는 공부]를 위한 것이고,

[모의고사로 된 기출문제집]의 용도가 비로소 [지금까지 공부한 전체 내용이 제대로 바로바로 기억이 나는지 확인하는 공부]를 위한 것입니다.

평가원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는 [모의고사를 푸는 감(실전력)]을 키우거나 유지하기 위해 하는 공부의 빈도를 늘려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6평 이틀 전까지도 평상시처럼 [유형별 기출문제집]만 푸는 공부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하고 [모의고사로 된 기출문제집]은 손도 대지 않았다면, 그 학생은 6평을 잘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모의고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를 푸는 감(실전력)이 어느 정도 이미 형성돼있어야 하는데,

[유형별 기출문제집]으로는 실제 모의고사를 푸는 감(실전력)을 절대로 기를 수 없습니다.

모의고사를 푸는 감(실전력)은 보통

-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해서 넓은 시험 범위에 대한 30개의 문제를 하나하나 처리하는 과정
- 본인이 그 100분 동안 문제를 풀 때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인지
- 본인이 30개 문제를 푸는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인지

등등과 같이,

[모의고사를 치르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계획, 시뮬레이션, 흐름 등등]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서 키워집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유형별 기출문제집]을 공부하는 것으로는 온전히 키울 수 없고,

[모의고사로 된 기출문제집]과 병행을 해야지만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말로 설명하기에 좀 복잡한 감이 있어 제가 글로 적을 수가 없었는데, 다들 제가 뭘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6평을 안정적으로 잘 치르기 위해서는 이 능력, 즉 모의고사를 푸는 감(실전력)이 필요한데,

이 모의고사를 푸는 감(실전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특정 기간동안 [모의고사로 된 기출문제집]을 주기적으로 공부해야 점진적으로 생기는 능력입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미리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모의고사를 푸는 감(실전력)을 기르기 위해 2주 동안 6평 전날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를 푸는 감(실전력)을 기르는 방법은 **방법 A**와 **방법 B**로 나뉘었습니다.

이때, **방법 B**는 **방법 A**를 경험해본 적이 있어야 실천이 가능합니다.

이번 6평은 방법 A로 대비하고, 9평은 방법 B로 대비하고, 수능 때는 방법 A와 B를 활용한 더 좋은 방법으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방법 모두 읽어보시고 본인 수준에 맞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갈게요.

방법 A

추천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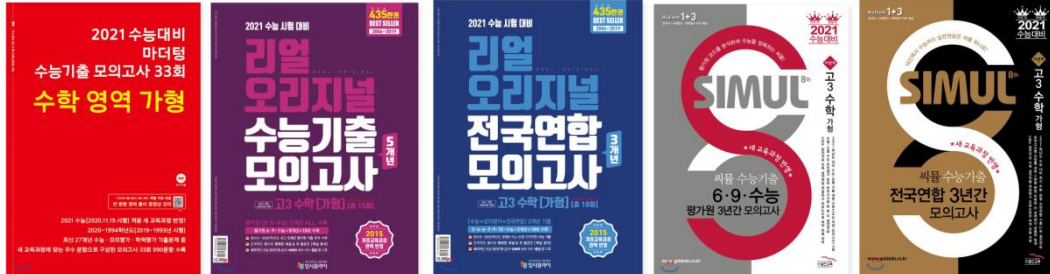
현역 - 3,4월 모평 기준 **2등급 이하**인 학생들

n수 -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꾸준한 1~2등급**을 못 받아본 학생들

우선 여러분들은 두 가지 종류의 문제집이 필요합니다.

1.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집]** → 이건 다 있을 테고...

2. **[모의고사 형태로 된 기출문제집]** → <마더텅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3회>, <리얼오리지널(수능기출 5개년 or 전국연합 3개년)>, <씨물 8th(수능기출 3개년 or 전국연합 3개년)> 등등



없으면 반드시 사세요!!! 여차피 위 책들은 6평 끝나고도 푸는 것은 물론, 수능 전날까지 반복해서 풀 문제집들입니다.

위 문제집들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하자면,

‘수능기출 모의고사’라 적혀있는 것들은 6,9,수능 시험지만 있는 문제집들이고,

‘전국연합 모의고사’라 적혀있는 것들은 6,9,수능 시험지에다가 3,4,7,10교육청 시험지까지 있는 문제집들입니다.

이때 <마더텅>은 33회분, 다른 책들은 15~20회분 정도 수록돼 있습니다.

올해(2020년)부터 교육과정의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 책에는 모의고사들이 출제됐을 당시의 온전한 그대로의 문제배치로는 수록돼 있지 않지만,

위 책들은 이미 변화된 교육과정에 맞게 알맞은 문제들만 수록됐고 실제 모의고사처럼 알맞게 편집해 둔 상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때, 제가 6평 2주 전부터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명시했으나,

개인적으로는 6월 평가원 시험에 대한 대비는 **D-17부터** 슬슬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17일이라는 기간 동안 풀어야 할 모의고사들은

올해와 작년의 3월 학평, 올해와 작년의 4월 학평, 그리고 2016학년도부터 2020학년도의 5개년치 6평으로,

17일 동안 총 9회분의 모의고사를 푸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ㅇㅋ? ㅇㅋ.

이제 D-17부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D-17 : 올해 3월 학평을 직접 출력해서 시간 재서 다시 풀어본 뒤 채점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틀린 모의고사 문제(들)를 위주로 [유형별 기출문제집]에서 찾아 그 유형(들)만 꼭 푼다.

D-16 : 모의고사는 풀지 말고,

어제 틀린 모의고사 문제(들)를 [유형별 기출문제집]에서 찾아 그 유형(들)만 꼭 풀거나 평상시처럼 자습한다.

D-15 : 작년 3월 학평을 직접 출력해서 시간 재서 다시 풀어본 뒤 채점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틀린 모의고사 문제(들)를 위주로 [유형별 기출문제집]에서 찾아 그 유형(들)만 꼭 푼다.

D-14 : 모의고사는 풀지 말고,

어제 틀린 모의고사 문제(들)를 [유형별 기출문제집]에서 찾아 그 유형(들)만 꼭 풀거나 평상시처럼 자습한다.

D-13 : 올해 4월 학평을 직접 출력해서 시간 재서 다시 풀어본 뒤 채점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틀린 모의고사 문제(들)를 위주로 [유형별 기출문제집]에서 찾아 그 유형(들)만 꼭 푼다.

D-12 : 모의고사는 풀지 말고,

어제 틀린 모의고사 문제(들)를 [유형별 기출문제집]에서 찾아 그 유형(들)만 꼭 풀거나 평상시처럼 자습한다.

D-11 : 작년 4월 학평을 직접 출력해서 시간 재서 다시 풀어본 뒤 채점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틀린 모의고사 문제(들)를 위주로 [유형별 기출문제집]에서 찾아 그 유형(들)만 꼭 푼다.

D-10 : 모의고사는 풀지 말고,

어제 틀린 모의고사 문제(들)를 [유형별 기출문제집]에서 찾아 그 유형(들)만 꼭 풀거나 평상시처럼 자습한다.

위처럼 **D-17부터 D-10**까지는 교육청 시험지들로 **모의고사와 복습을 격일 단위로 반복하는 연습부터** 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워밍업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D-10**까지는 평가원 모의고사 운용력을 기르기 위한 예열과정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다음, 이제 **D-9**부터는 본격적으로 **평가원 시험지**들로 똑같이 [모의고사 풀기 + 유형별로 복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평가원 모의고사를 푸는 감(실전력)이 키워지기 시작하는 때는 지금부터입니다.

즉, **D-9**부터는 실제 평가원 모의고사 운용력을 기른다는 목표로 공부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D-9 : 2016학년도 6평을 그냥 풀어본 뒤 채점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틀린 모의고사 문제(들)를 위주로 [유형별 기출문제집]에서 찾아 그 유형(들)만 꼭 푼다.

참고로, 제가 수험생이었을 때에는 이날(D-9) 조금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푼 3월과 4월의 교육청 시험지도 양질의 시험지였지만, **평가원 시험지는 그 급이 한 단계 위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날부터 며칠간은 평가원이라는 곳에 약간의 겁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 풀었습니다.

D-8 : 모의고사는 풀지 말고,

어제 틀린 모의고사 문제(들)를 [유형별 기출문제집]에서 찾아 그 유형(들)만 꼭 풀거나 평상시처럼 자습한다.

D-7 : 2017학년도 6평을 풀되, **오늘은 그냥 풀지 말고 2016학년도꺼를 풀었을 때를 상기시키면서 풀어보고,**

시간이 남으면 틀린 모의고사 문제(들)를 위주로 [유형별 기출문제집]에서 찾아 그 유형(들)만 꼭 푼다.

D-6 : 모의고사는 풀지 말고,

어제 틀린 모의고사 문제(들)를 [유형별 기출문제집]에서 찾아 그 유형(들)만 꼭 풀거나 평상시처럼 자습한다.

D-5 : 2018학년도 6평을 풀고, **마찬가지로 2016, 2017학년도꺼를 풀었을 때를 상기시키면서** 풀어보고,

시간이 남으면 틀린 모의고사 문제(들)를 위주로 [유형별 기출문제집]에서 찾아 그 유형(들)만 꼭 푼다.

D-4 : 모의고사는 풀지 말고,

어제 틀린 모의고사 문제(들)를 [유형별 기출문제집]에서 찾아 그 유형(들)만 꼭 풀거나 평상시처럼 자습한다.

D-3 : 2019학년도 6평을 풀고, **마찬가지로 2016, 2017, 2018학년도꺼를 풀었을 때를 상기시키면서** 풀어보고,

시간이 남으면 틀린 모의고사 문제(들)를 위주로 [유형별 기출문제집]에서 찾아 그 유형(들)만 꼭 푼다.

D-2 : 모의고사는 풀지 말고,

어제 틀린 모의고사 문제(들)를 [유형별 기출문제집]에서 찾아 그 유형(들)만 꼭 풀거나 평상시처럼 자습한다.

D-1 : 2020학년도 6평을 풀고, **마찬가지로 2016, 2017, 2018, 2019학년도꺼를 풀었을 때를 상기시키면서** 풀어보고,

시간이 남으면 틀린 모의고사 문제(들)를 위주로 [유형별 기출문제집]에서 찾아 그 유형(들)만 꼭 푼다.

D day : 그동안 5개년치 평가원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를 상기시키면서 시험을 친다.

끝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swk님, 모의고사를 '매일' 풀지 않고 '격일'로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물론입니다.

모의고사만 계속 풀면 **모의고사를 푸는 행위 자체에만 집착**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틀린 문제들에 대한 내용적 복습 및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학 공부의 방향성과 감 모두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모의고사를 푼 뒤에는 틀렸거나 헷갈린 문제들을 중심으로 유형별 기출문제집을 통해

복습 및 보완을 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구멍이 하나둘씩 메꿔집니다.

또한, 교육청과 평가원 두 모의고사 모두

한 회당 90분 이상 충분히 잡고, 하루 중 동일한 시간대에, 실제 모의고사 푸는 것처럼 푸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p.14-15에서 언급했듯, 반드시 **모의고사를 푸는 그 순간에** 모르거나 바로바로 생각이 안 들거나 헷갈린 문제에다가 **별표를 바로바로 치세요.**

그래야 모의고사를 다 푼 뒤에 틀린 문제들은 물론,

시험 도중 헷갈리거나 버벅댄 문제들에 대한 기억을 쉽게 되살려 찾을 수 있음에 따라,

이 문제들에도 스스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풀려서 답을 맞췄지만, 그 문제(들)를 '버벅대거나 처음에 이해를 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맞췄다면,

그 문제(들)는 아직 마스터하지 못한 거고,

그 문제(들)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 시간이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에 유의하셔서 모의고사 풀 때 어느 정도 막히는 것들은 별표를 바로바로 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본 뒤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두 종류의 모의고사는 그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는 교육청 모의고사보다 문제들이 간결하고 훨씬 더 깊은 사고를 유도한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때 평가원 모의고사 한 회분이 담고 있는 깊이에 의해,

모의고사를 푸는 도중 **생각보다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지 못함**으로 인한 **중압감(답답함)**이라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사실 그 중압감과 답답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14번까지는 빨리빨리 풀어서 10분밖에 안 걸렸는데, 15번에서 좀 막히고, 16번에서는 계산량 및 식 전개할 게 많아서 풀이 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17번에서는 구한 답이 보기에 없어서 그제야 계산실수 했구나 인지하고 어디서 계산실수 했는지 방금까지 쓴 풀이 다시 보다가 못 찾아서 풀이 지우개로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풀어서 시간 잡아먹고 지우개로 풀이 지울 때도 은근히 시간 많이 들고, 18번에서는 확통 빈칸인데 발문 자체도 길어서 읽어야 할 게 많고 케이스 분류가 꽤 돼서 일일이 생각하느라 시간이 10분 정도 걸리고, 19번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식 설정할지 생각하다가 갑자기 시계 보니까 55분 남아있는데 방금 45분동안 18문제밖에 안 풀렸다는 사실에 답답해서 22번부터 쪽 풀고 다시 돌아올까 고민하다가 아니 다 19번 이거 풀자 했는데 식 어떻게 설정할지 아직도 몰라서 고민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20, 21 일단 패스하고, 22~26 수월히 풀고, 27번에서는 계산량이 좀 많았는데 혹시나 17번 풀 때처럼 계산실수하지 않았나 걱정하다가 20, 21도 아직 못 풀었는데 40분밖에 안 남아서 잠시 불안해지고, 28번에서는 또 케이스 분류라 시간 오래 걸리고 주관식이라서 계산 하나라도 실수하면 나가리라 더 빠치고, 30분 남았는데 2130은 일단 내버려 두고 2029 중에서 뭘 풀까 고민하다가 29번 건드렸더니 접근 방법이 잘 안 떠올라서 페이지 두 장 넘겨서 20번으로 돌아와서 구역구역 풀고, 29번도 마찬가지로 구역구역 풀고, 15분 남았는데 2130중에서 21번은 짝을 확률은 있으니까 일단 30번부터 풀어보자 하고 문제 읽었는데 포스가 남달라서 지레 겁먹고 21번으로 다시 돌아오고...

즉, 위 보라색으로 표시한 전체 과정 그 자체가 익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100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문제를 구역구역 풀어나가는 과정, 그 과정이 익숙해져야 실전에서 멘탈나가지 않고 안정적인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100분 동안은 일어나지 않고 꾸준히 모의고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겠죠.

정리하자면, 6평이 몇 주 남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의식은,

6평 전날까지 문제집에 수록된 6평 모의고사들부터 한 번 이상씩은 풀어보면서, 평가원 수험시험지들 자체의 체감난이도와 문제들의 깊이를 직접 느껴보고, 이에 대해 익숙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혹독하게 훈련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새로 나온 평가원 모의고사를 매번 막힘없이 풀 수 있는 학생은 없어요.

기존의 기출된 모의고사들부터 반복훈련을 하면서 시험을 치르는 행위 자체에 익숙해져야 막힘없이 풀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이때, 반복훈련은 본인의 의지 없이는 못 하는 거고, 이걸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은 다들 아실 겁니다. 스스로 느껴야 하고 실천해야 해요 스스로!

방법 A 정리

1. 이번주는 3, 4월 교육청 기출 모의고사 풀고 유형별 문제집으로 틀린거/헛갈린거 복습하기
2. 다음주부터 6평 전날까지 6월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 풀고 똑같이 복습하기
3. 모의고사 푸는 순간 모르는 거 헛갈리는 거 바로바로 별표 치기
4. 모의고사 풀 때 느끼는 중압감에 익숙해지기 (꾸준한 반복을 통해 100분 동안 꾸준히 집중할 수 있는 힘 기르기)

방법 B

추천대상:

현역 - 3,4월 모평 기준 **1등급 이상**인 학생들

n수 -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꾸준한 1~2등급** 받아온 학생들

여러분들은 5개년치 기출문제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외워져 있고 다양한 컨텐츠도 접해 봤으며, 그동안 많은 반복학습을 통해 수학시험을 볼 때의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에 제대로 그려지고, 위기 상황에서 대처를 침착하게 잘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간단해요 :D

[모의고사 형태로 된 기출문제집]으로 평가원 모의고사를 푸는 감(실전력)부터 끌어 올리고, 풀고 싶은 사설모의고사를 각자 구하셔서 경험치를 높여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푸는 감을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 안에 올릴 수 있으니, **6평 1~2주 전부터**

• 하루는 평가원기출모의고사+오답,

• 다른 하루는 사설모의고사(대성, 종로, 이투스 이런 거 말고, <오르비 봉투모의고사>, <시대인재모의고사>, <한석원 모의고사>, <D&T 모의고사> 등 평가원 모의고사와 동일 or 이상 퀄리티의 모의고사)+오답

이렇게 격일로 번갈아 가면서 대비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사설 모의고사만 풀다 보면 평가원이 요구하는 기준에 대한 감을 잊기 쉬우니,

반드시 평가원 모의고사들도 적절히 섞어가면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6평을 잘 보기 위해서는 **6평 전까지 킬러n제 등등의 문제집'만' 푸는 행위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6평 전날까지 킬러에만 집중하면,

모의고사 운용력과 17~19, 27~28 등등의 준킬러 문제들을 푸는 감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모의고사에 대한 감이 떨어진 채로 실전을 치르면,

어색함 → 별 것 아닌 문제에 시간 소모 또는 시험 도중 자신감 하락

등등의 부정적 요소들의 양성 피드백 현상이 일어나,

결국에 실전에서는 시간도 부족해지고 기분도 나빠진 채 열심히 대비한 킬러도 못 풀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평가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오로지 킬러n제에만 집중하지는 마시고,

킬러n제 문제집을 풀더라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모의고사 한 세트를 꾸준히 푸는 연습을 같이하여**

모의고사 운용력과 준킬러 문제들을 풀어내는 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3, 4월 1등급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지세요!

방법 B 정리

1. 반드시 6평 이전까지 평가원 시험에 대한 감 다시 끌어 올리기
2. 평가원 감 이미 끌어 올렸으면 사설로 보충하기
3. 평가원 감 끌어 올리지 않은 채 6평 전날까지 n제'만' 여유롭게 푸는 행위 금지
4. 겸손은 기본, 나태해지지 말기 - 6,9평 잘 봤자 수능 때 못 보면 헛수고

< 평상시 모의고사를 풀 때 2130을 제외했는데도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면 >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수학문제를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특정한 유형들의 문제를 아직 많이 풀지 않아, 그 유형들에서 막혀서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당연히 일정량의 공부량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기억력/습관화의 형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억력과 습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특정 시간 이상의 공부량이고, 공부량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애초에 여러분들이 선천적인 수학적 재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2~6월의 시기에 <마플>이나 <자이스토리>로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고 많은 유형을 익히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공부량 자체에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한다

는 점입니다. 짧게말해서 그냥 눈만 뜨면 공부 겁나게 하라는 겁니다ㅋㅋ

2~6월은 [모르는 유형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 유형만 파는 공부]를 하는 시기예요.

수학가형에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은 기본적으로 투자하면서 큰 구멍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메꿔나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6평 전까지는 당연히 모의고사를 볼 때 시간이 뻑뻑할 겁니다.

9월까지도 시간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또한 심지어 8~9월까지 시간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혹시나 수능 날 시간 안에 다 못 풀 수도 있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6평 때도 걱정했고 9평 때도 걱정했고 각종 모의고사를 풀기 전에도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걱정을 하는 와중에도 저는 매일 일정량 이상 묵묵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면 이걸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시간 투자하면서 공부하고 반복한다면 문제 푸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니까,

모의고사 점수에는 절대로 신경 쓰지 말고 꾸준.히.갈.만.가.세.요.

Q. 1 (cf p.10)

대치로 안 가도 성공이 가능하군요!! 올해 재수하는데 주변에서 강대 안 가면 안 될 것 같이 말씀들을 하시니 불안했고, 대치는 멀고 속소마련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분당인데 분당에 가까운 곳 선택해도 괜찮을까요?
청솔과 메가스터디가 있는데 어디로 다닐지 고민입니다.

저는 애초에 학원에 의지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어떤 종류의 공부든지 간에, **공부는 때와 장소에 상관 없이 어차피 혼자 하는 것이라 여겼고, 수능공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혼자 고독을 즐기며 공부한 걸 반복하고, 귀찮은 것들을 참아가면서 시간을 보내야 결실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자습을 한번 시작하면 2시간 이상은 일어나지 않고, 집중하고, 졸지 않게끔 본인 컨트롤을 잘해야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학원은 집에서 가까운 데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통학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체력을 소비하게 되고 몸이 피곤해서, 공부할 때의 집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좋다, 어디 시설이 더 좋다 등등보다는, 본인의 체력과 주변 환경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공부도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안 될 때도 있어서 **관리** 또한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청솔학원을 더 우선순위로 둘 텐데요, 청솔학원이 관리팀도 따로 있어서 관리 하나는 제대로 잘해준다고 들었거든요.
재중학원도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전에는 최대한 다양한 곳을 방문해서, 원장선생님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직접 여쭙보고 서로 비교한 뒤 골라야 해요.
재중학원 내 규칙 역시 학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쉬는시간이나 밥 먹을 때 친구들과 얘기할 수 있게 해주는지 마는지, 남녀구분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등등의 조건들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있다 보면 쉽게 들떠지고 분위기에 빠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애초에 교실에서 자습할 때만큼은 친구 등의 방해요소가 다 차단되고 언제든지 혼자서 조용하게 할 수 있는 재중학원을 정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일체 대화를 할 수 없었고, 교실 안에서 급식 먹을 때도 철판 소리밖에 안 났던... 그런 재중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실 안이 항상 조용하니까 공부 하나는 정말로 잘 됐습니다.
참고로, 학원의 선생님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세요.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평상시 질문도 자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게 보면 애착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애제자'가 되면 때때로 특별한 자료들도 잘 주신다는 점... 재중학원생활도 사회생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Q. 2 (cf p.10, p.14-15)

[혹시나 손놓고 싶어도 손놓지 않게 하려고 + 질문가능]
때문에 단과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선생님께서는 그때그때 앞에 있는 모의고사에 집중하면서 완벽하게 쌓아가면 된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3월범위만 공부시키고 있거든요.
3월 학평 문제들에 시간 할애하지 않는 게 좋나요?
21,30이라든지 틀린문제 복습이라던지요!
그냥 주시는 문제 풀고, 학원 가서 틀린 거 풀이 듣고 끝! 이런식으로 할까요?

네, 단과학원에 다니시는 건 잘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의고사를 푸는거라면 괜찮습니다. 그나마 교육청 모의고사이므로,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단, 모의고사를 풀 때는 제가 p.14-15에서 언급한 [모의고사날 수하시험을 보는 도중에 들여야 하는 중요한 습관]부터 들이시면 됩니다.

2130은 애초에 신경쓰지 말고 나머지 28문제를 다 풀면 그때야 비로소 신경쓰고,
시험 보는 도중 막히는 것들 바로바로 번호 위에 별표 체크하시고, 채점 후 틀린 문제는 그 문제에 해당하는 유형을 바로바로 [유형별 기출문제집]에서 찾아서 다시 푸는 패턴을 유지해보려 하세요.

그리고 단과학원에서 해설 강의를 해주신다면 듣는 시간에 모든 문제의 풀이를 다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듣는 건 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단과학원 다니는 시간]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페이스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일주일에 두세시간쯤 단과학원에 있는 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 3 (cf p.10)

swk님께서 개념공부 시 인강 또는 학원수업과 개념서를 같이 봐야
효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한완수같은 개념서만 주구장창 보는 공부는 효율이 낮을까요?

인강 없이 스스로 3시간 이상 집중해서 책으로만 자습하는 능력이
되신다면,
즉 개념서만 몇시간동안 주구장창 볼 능력이 되신다면 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루도 빠짐없이 2주 이상 지속할 자신이
있다면 하세요.
보통 3일째 되는 날, 풀다가 때려칩니다.
잘하면 5일까지는 합니다.
설령 5일을 지속했다라도, 분명히 회의감이 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 벌써 1일째 학습한 내용도 까먹었고, 5일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진도가 이정도밖에 안나갔는데..'
이러면서요.
사실 이렇게 5일 이상 버틴 경우는 잘하고 있는 게 맞는데,
[심리적인 압박감과 조급함에 압도당해서] 또는
[오늘도 해야 할 일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까먹어서]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또한, 이 공부법은 자신과 그 책만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될만한 게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대부분의 고3들은, 이처럼 학기초에 집중력과 지속력이 아직 완벽히
형성돼있지 않아서,
600페이지가 넘는, 해설까지 포함하면 900페이지가 넘는 한완수
미2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혼자서 분량을 지속적으로 조절해가면서
1회독을 완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설령 1회독을 했다 해도,
이런 과정이 처음인 수험생들에게는 시행착오를 당연히 겪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이고,
전체로 따졌을 때 책 내용의 10%도 기억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앞부분으로 갈수록 더 기억이 안 날 테구요.
물론 다시 2회독을 해서 보면 기억이 조금씩 다시 나겠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된 상황일 가능성이 커서
1년 더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테니까요.
어떠한 공부라도, 반복할수록 실력은 늘어요.
그런데 그 반복을 하는 데 들인 시간이 얼마큼이었냐가 문제죠.

한완수와 같은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 말고,
"인강을 듣고 개념서도 잠시잠시 보면서 문제집의 문제들을 꾸준히
푸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병행"하게 되면,
인강은 지침서 역할을,
개념서는 보완해주는 역할을,
문제집은 배운 개념들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강 없이 혼자 한완수로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지속하게끔 하는 동기요인들이 한두개 더 생김에 따라,
앞서 언급한 게으름과 나태함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주고,
분명 한완수로만 공부하는 것보다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미세한 차이들이 n회독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차를
발생시키고,
그에 따라 올해 안에 실력을 제대로 형성할지, 재수 및 n수를 해서
부족한 실력을 메꿔나갈지가 결정되는 거구요.

물론, 시험 당일 멘탈이 나가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도 분명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역시, 스스로가 멘탈관리를 평상시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멘탈관리도 노력에 따라 가꿔나갈 수 있는 것이고, **멘탈관리 역시
실력입니다.**
또한 공부실력이 다져져 있으면, 멘탈이 나갈 이유가 없어요.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시험 볼 때 멘탈나가서 어쩔 수 없더라들 많이 하던데 사실 이견
핑겟거리에 불과하고 훈련이 덜 된 것일 뿐입니다.

Q. 4 (cf p.11, p.16-17)

포만한이나 오르비 칼럼들을 보면 답지를 절대 보지 말라는 게 절대적이었는데,
저도 답지를 안 보려고 고1,2 동안 노력했지만,
요즘 느끼는 거는 swk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암기(체화)라는 것에 백배 공감합니다.
그러나 2130같은 킬러 중에서도 '난도가 매우 높은' 킬러같은 경우에는 10분 고민하고 바로 답지를 보는 게 '때에 따라서는'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킬러 중에서도 무게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결론적으로 학생분의 질문을 "어려운 킬러문제를 답지 없이 오래 붙들고 있으면 사고력이 길러지는가?"로 요약할 수 있을텐데, 사실은 제가 뇌과학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하여는 제가 명쾌한 해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거든요ㅋㅋㅋㅋ

말씀대로 이 부분은 "때에 따라서" 시간조절을 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자습시간에 킬러문제를 풀 때 스스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했더니 어느새 30분이 지나 있고, 조금 더 고집을 부리다가 1시간이 지나 있어서 그날 계획했던 다른 공부들을 못하게 된 경우]들이 많았고,
한 킬러문제를 계속 잡고 늘어지면 [어느 순간 멍을 때리고 시간을 더 낭비하는 상황]들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10분 제한을 습관화한 주된 이유는 [너무 한 문제에 매달려서 페이스를 망가뜨리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과목들도 페이스를 맞춰 가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한 문제에 답지 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사고력이 길러진다는 보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 = [일회성의 시간투자가 아닌, 문제를 한 번 학습할 때 들이는 시간은 짧지만 다시 학습하는 횟수가 잦은 반복학습('단기 기억의 장기 기억화' or '체화')]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킬러문제를 대할 때 답지 없이 오래 고민하는 경우는 재수와 삼수 시절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학기 초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B.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저도 모르게 한 문제를 잡고 답지 없이 1시간 이상 고민한 경우들이 있었고,
확실히 배운 게 점점 많아지고 자신감이 점점 커져서인지 여름방학 때 30분 넘게 답지 없이 고민하는 문제 수가 한 달에 네다섯 문제 정도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날들을 돌이켜보면 답지를 보기 전까지는 얻는 게 거의 없었고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답지를 보면서 힌트를 우선 얻고,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그 힌트 또는 비슷한 생각이 머릿속에 미미하게 기억이 났다면,
그 경우에 비로소 '어 내가 이런 생각/발상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팍팍 떠오르는구나!?'하면서 사고력이 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Q. 5 (cf p11, p.16-17)

해답지는 10분 이상 고민 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해설을 통해 많은 걸 알아가고 또 논리적으로 사고검증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머칠 뒤에 다시 풀어보면 또 못 푸는걸 경험했습니다.
swk님은 이런 적은 없으셨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현상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억하고 까먹고, 기억하고 까먹고를 반복해야 한다는 것.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100% 술술 풀린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문제를 5번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5번을 반복하는 데 사용한 시간이 얼마나 길든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6월까지 그 문제를 5번 반복하는 게 미션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5일 연속으로 오후 9시 40분부터 20분동안 그 문제에 투자해 보세요(20분 동안 고민+답지확인 둘 다).
아니면,
3월 1일부터 7일 간격으로 오후 5시 40분부터 20분동안 그 문제에 투자해 보세요.
5일 뒤든, 5주 뒤든, 그 문제는 풀이과정 전체가 외워져있을 겁니다.
5번째로 푼 뒤에는, 그 풀이과정이 3일정도는 계속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다가 다른 문제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1달 뒤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볼 기회가 반드시 생길 겁니다.
3월 1일부터 5일 연속으로 했으면 4월5일,
3월 1일부터 7일 간격으로 했으면 5월 중순이 되겠네요.
그때 문제를 다시 풀면, 기억이 바로 나지 않을 테지만, **어렵פות한 기억은 반드시 남아있을 겁니다.** 결국 그때도 답지를 살짝 보면 풀어낼 거고, 문제를 푸는 메커니즘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겠지만, 이번에는 3일이 아니라, 2주정도 기억이 날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수능때까지 반복한다면, 당연히 그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ㅈ밥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반복을 하는 데에서 오는 귀찮이즘만** 관리를 잘하시면 됩니다.
(사실 반복하는 게 귀찮지 않도록 멘탈관리를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ㅋㅋ).

Q. 6 (cf p.13)

현재 기출문제집을 다 끝낼 때까지는 새로운 문제집을 사지 말라는 말씀에서 '끝낸다'라는 말이,
현재 기출문제집을 답지 안 보고도 대부분의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정도의 단계를 의미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집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1회독 할 때 90% 정도가 완벽하다고 느껴졌다면, '1회독이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앞으로 2회독, 3회독을 할수록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구멍들이 메워질 것을 예상하면서 공부하시고, 1회독 때 커버하지 못한 10%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2회독, 3회독 때 또 도전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기출을 두 번 이상 돌리다 보면 어느 정도가 '완벽하게 문제집을 푼 건지'에 대한 감이 나중에 올 겁니다ㅎㅎ
저는 3회독쯤 되니, 미2에서는 한두 개 정도 문제만 빼고, 기백에서는 한문제만 빼고 나머지 문제는 답지 보지 않고도 끄적끄적 풀면 답이 나왔어요.

또한, 2130문제들은 제가 4회독, 5회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이법이 막 바로바로 떠오른 건 아닙니다ㅋ
몇 번을 반복하더라도 한두 문제는 꼭 구멍이 생길 테지만,
• 평상시 인강/학원수업, 개념서, 학원교재와 프린트, 유형별 기출문제집 - 이거 4가지만이라도 제대로,
• 6평 전까지 유형별 기출문제집은 최소 1회독 이상, 수능 끝나기 전까지 적어도 3번 이상
입니다!!

(마음속으로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세우고 세뇌하라는 겁니다)

Q. 7

혹시 EBS에 대한 글이 없던데,
EBS는 그럼 아예 안 푸신 건가요??

네. ebs 책들은 한 번도 푼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일단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우선 제가 EBS와 관련된 책은 한 번도 푼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글에 까먹고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출을 돌리기에 바빴고, EBS는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기출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특강을 풀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전 [2018학년도 수능 수학기형 27번 이차곡선 문제]가 EBS 100% 연계(문제를 살짝 바꿨지만 아이디어가 똑같았으니까)인 문제가 있긴 했지만,
5년만에 처음으로 100% 연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확실히 연계교재를 풀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수험생들마다 시간차가 확연히 들어나긴 했습니다(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평소에 도형에 강해서 그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ebs연계든 아니든 사바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 어떠한 평가원 시험지에서 100% 연계 문제는 없었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 수학기형 27번 독립확률 문제]도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EBS 수능완성연계이긴 했다만,
'독립'의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간단한 노가다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따지면,
기출부터 완벽히 돌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8 (cf p.16)

유형1)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여러 번 안 풀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진짜 너무 쉬운 문제들이 아니면, 계속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룬다’] 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그냥 매일 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급한 [유형1)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모의고사에서
5번~19번또는20번, 24번~28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은 평상시에 풀어야 하는 것들이고, 특히나 모의고사가 일주일
앞둔 시점부터는 ‘매일’ 일정량 이상씩 풀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수학점수는 시험을 보기 직전에 감이 유지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시험 직전까지 수학공부를 별로
하지 않은 상태인 사람이 시험을 보는 도중에 감을 끌어올릴 수가
있지만,

최근에 수학을 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떨어져 시험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평상시에 수학을 할 때 [사고하는 과정]이나 [계산력]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때 ‘수월하게 풀리는 느낌’이 나지 않아
시험 도중 불안해질 확률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애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 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수1·미적분·확통·기벡]을 구성하는 단원들 중 특정한 단원 두 개를
A와 B라고 합시다. 평상시에 A단원의 유형1)의 문제를 많이 풀어야
B단원들의 유형1)문제들도 푸는 데 도움을 줍니다. A단원의 유형1)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면서 익숙해진 계산방법들이 조금씩 모여서,
만약 B단원의 문제에 비슷한 형태의 계산이 나온다면, 그 문제도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단원의 유형1)의 문제들을 평소에 자주 풀면, 다른 단원들의
문제들도 더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기출문제집
전체를 더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더 수월하게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4개 정도 들자면...

<예시1>

[수1의 삼각함수의 도형의 극한 단원]과 [기벡의 공간도형 단원]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1의 도형의 극한 문제들을 통해
[특정 도형의 선분의 길이를 θ 와 삼각함수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수월해지면, 기벡의 공간도형 문제들에서도 [특정
입체도형의 선분의 길이를 θ 와 삼각함수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는 데 ‘어색함’을 느끼지 않아 ‘어색함’을 느끼는
친구들보다 더 빠르고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시2>

중3때 배웠던 [이차함수의 최댓값 또는 최솟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수1에서 배우는 [삼각함수로 나타낸 식의 최댓값 또는
최솟값을 구하는 방법]이 쉽게 이해가 될 테고요.

<예시3>

[삼각함수로 나타낸 식의 최댓값 또는 최솟값을 구하는 방법]에서도,
앞부분에서 배웠던 [싸인제곱+코싸인제곱=1]을 써먹을 생각을
해야 풀리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싸인제곱과 코싸인제곱을 더하면
1이라는 것이 본인에게 익숙해야 하구요, 또, 1이라는 숫자는
상수라는 사실도 본인에게 익숙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삼각함수와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6이라는 숫자를 보면, 그 6이라는 숫자를
6싸인제곱+6코싸인제곱 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시4>

수1의 [분자와 분모 모두 삼각함수에 대한 식으로 돼 있는 함수의
최댓값 또는 최솟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적분의 미분단원에서 [몫의 미분법 공식]이 본인에게 익숙해야 바로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음...

이보다 더 많은 예시가 있지만ㅋㅋ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유형1)문제들을 평상시 자주 푸는 연습]은 수학적
감을 끌어 올려 주는 데 매우 중요한 훈련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고로, 유형1)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매일 푸시기 바랍니다.

Q. 9 (cf p.16)

2130과 같은 유형3)에 해당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일주일 딱 주어졌으면 언제 어떻게 푸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
1문제를 가지고 몇 시간씩 계속 씨름하는 것보다,
10분 안에 안 풀리면 답지를 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경험적으로 느끼신 건가요?

우선 밑바탕 2개만 깔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밑바탕은, 2130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1.평가원기출문제의 2130]과,
[2.처음 보는 유형의, 또는, 기출을 변형한 사설모의고사나 n제의 2130]이 있어요.
두 번째 밑바탕은 제 학원 생활에 대한 정보인데,
저는 **평일**에는 아침부터 10시까지,
주말에는 아침부터 6시까지 의무적으로 학원에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즉, 제 수험생활시절은
[A.재종학원에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시간]과
[B.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우선 [1.평가원기출문제의 2130]의 경우,
저는 [A.재종학원에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시간]에 주로 다뤘고,
시간이 된다면 [B.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도 풀었습니다.
[1.평가원기출문제의 2130]은 처음에는 유형3)으로 느껴지지만,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유형2)로 느껴지셔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저의 경우 대부분의 평가원기출문제의 2130은 학원수업에서
현장강의로 설명을 해주셨고,
쉬는시간 중간중간에만 혼자 다시 풀면서 복습했습니다.

학원의 시스템이 제가 다녔던 학원과 다른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학원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면
<강남구청 인강>, <EBS기출해설강의>, <현우진 수분감>, <한석원
크리티컬포인트>...

등등의 기출문제 해설인강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 대부분의 [1.평가원기출문제의 2130]은 유형2)가 돼 있을
겁니다.

다음 [2.처음 보는 유형의, 또는, 기출을 변형한 사설모의고사나
문제집의 2130]의 경우,
[B.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만** 풀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똑같은 문제를 늘어지게 풀면,
머리가 어느 순간 멍해지기도 하고,
같은 틀 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할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수능공부는 효율성도 따져야 한다는 생각에,
[A.재종학원에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시간]에는
그나마 집중을 더 잘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머리에 담아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이유로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문제들은 [B.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만** 푼 것입니다.
그래야 기본적인 것들을 더 많이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니까요.
[2.처음 보는 유형의, 또는, 기출을 변형한 사설모의고사나 문제집의
2130]은
별 큰 부담을 갖지 않고 10분정도 도전하고, 안풀리면 답지 봐가면서
공부했어요.
'에이 뭐 어차피 답지 볼 것 같다 이걸ㅋㅋ'이러면서요
그래도 10분 동안 풀 때는
문제의 모든 조건을 똑바로 읽고,
최대한 많은 개념을 상기시키고,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예측하면서,
현장시험을 볼 때처럼 최대한 진지하게 집중하면서 풀었습니다.
8~10월 정도 되니까, 한 달에 그런 문제는 10문제 정도만 푼 것
같은데,
30%는 10분 안에 풀어서 맞았고,
70%는 10분 내외로 풀고 답지봤습니다.

Q. 10 (cf p.17)

[A. 수업이후 개념서] [B. 학원숙제] [C. 해당하는 기술을 풀어나가]라고 작성하셨는데,

swk님께서 학원에서 나가는 진도대로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독재에서 혼자 합니다.

저처럼 [재중학원과 비슷한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하는 학생들]은 A.B.C.과정을 어떤 자료나 책으로 며칠 동안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재중학원은 보통 2월 중순 ~ 6월 초까지의 14주 정도 동안 수1, 미적분, 확통을 각각 1바퀴씩 돌려주는데, 수1-미적분-확통 각 분야당 4단원 정도가 있으니,

각 분야별로 한 단원당 3~4주 정도의 기간 안에 끝내자

라고 목표로 세우면 되겠습니다.

쉬운 단원은 그것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끝내고, 어려운 단원은 좀 더 넉넉하게 잡고 끝내면 됩니다.

수1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단원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1단원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는

[1-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2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

[1-3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

이렇게 3개의 하위단원이 있는데요,

이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상대적으로 쉬운 단원입니다.

그러니,

각 하위단원당 1주일보다는 짧게,

즉,

1-1 은 **5일**,

1-2 도 **5일**,

1-3 은 그나마 가장 간단하고 분량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3일**

이렇게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1-1을 공부할 **5일**]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학생분께서는 혼자 하신다고 했으니,

[재중학원수업]은 본인이 선택한 인강으로,

[수업이후 개념서]는 <수학의바이블이투스북>이나

<한석만수학의원리> 등등 중에서 하나,

[학원숙제]는 개념서보다 좀 더 어려운 책인

<수학의정석기본편>이나 <RPM>이나 <썸> 등등에서 하

(사실 이들 중 어떤 책인지는 상관없고, 그냥 책 하나만 더 있지만 하면 됨),

[기출문제집]은 <마플>, <자이스토리>, <마더텅검정책>,

<너희들의기출문제> 등등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5일 동안 각 책에 해당하는 1-1 부분의 모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1일차 : 1-1에 해당하는 인강을 듣고 개념책을 훑고 몇몇 문제를 조금씩 푼다

2일차 : 개념서 다시 보고 <수학의바이블이투스북>의 1-1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 푼다

3일차 : 1-1에 해당하는 <수학의정석 기본편>의 문제를 다 푼(끝까지 못 풀어도 되고, 어려운 것들은 넘겨도 됨)다

4일차 : 어제 끝까지 다 못 푼 <수학의 정석 기본편>의 문제를 다 풀고 <마플>을 시작한다

5일차 : <마플>을 마무리한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5일 동안 1-1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는 확률은 극히 낮겠지만,

혹시나 그러면 틀린 문제들부터 다시 보시고,

풀었던 문제도 또 풀어보고,

다른 책으로 **B.→C.**과정을 반복하세요.

공부는 어쨌든 결국에는 시간투자와 반복입니다.

A.→B.→C. 과정을 곳곳하게 지속할 수 있으면,

달라졌다고 느끼는 날은 1달 안에 반드시 옵니다.

이 방법이 바로 반복효과의 위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1이 완벽히 됐다 싶으면, 1-2로 넘어가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1-2를 정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Q. 11 (cf p.22)

기출문제집을 여러 번 풀다 보면 더 좋은 사고과정이 생각나는데, 이런 거는 한 번 생각하면 적어두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p.21에서 언급했듯 저는 문제집을 풀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생각이나 풀이들을 문제집의 문제 위아래가 바로바로 **보라색**으로 적어뒀고,

p.22에서 언급했듯 다시 보는 문제들에도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역시나 **보라색**으로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석하고 있는 **1회독용 기출문제집은 절대로 다 풀고 나서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때, 혹은 2회독용 문제집을 풀고 있을 때 “어라?” 하고 현재의 1회독용 기출문제집을 다시 볼 일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1회독용을 버리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지금부터 꼭 **1회독용 기출문제집은 남은 9개월 동안 계속 사용할 주 무기로 만들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기출을 돌리다 보면 2회독용, 3회독용 책들을 사겠지만, 2회독용 이상부터는 그냥 끄적끄적 시험 보듯이 풀어내고,

문제를 풀면서 든 생각이나 사고과정들은 지금 분석하고 있는 **1회독용 책에다가 동땅 때려 박아서 써놓을 생각을 가지세요.** 나중에 보물창고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때, 제가 수험생이었을 때는 따로 오답노트 정리는 안 해도 됐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회독용 문제집 자체를 오답노트라고 생각했거든요.**

참고로 오답노트는 절대로 따로 시간 들여 만들 생각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 못 하고 헛갈리는 것만 한군데에 모으면 진짜 시원하고 정돈되고 깔끔한 느낌 받는다는 거, 그거 저도 아는데,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1회독용 책을 한 번 처음부터 쪽 펼치면 보라색 글씨만 찾아서 그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고 잊혀진 생각만 다시 끄집어내면 돼요.

문제집만큼 좋은 오답노트는 없습니다.

[책 펼치면서 보라색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노트로 문제를 옮겨적거나 오려 붙이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는 확실히 덜하잖아요. 이 오답노트에 대한 태도는 다른 과목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 12

비킬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서 그러는데, 20,21,29,30을 제외한 4점짜리만 훈련할 수 있는 문제집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어요!! 완벽히 20,21,29,30이 제외된 건 아니지만, 나머지 4점짜리와 어려운 3점짜리만 모아둔 문제집이 있습니다!! 우선,

3점짜리와 쉬운 4점짜리만 모아둔 문제집이 있는데요, <N기출 수능기출문제집 가형(자연계) 3점 집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처음에는 ‘음 너무 쉬운 거 아닌가...?’할 수 있지만, 막상 풀어보기 시작하면 괜찮습니다.

어떤 책이든 제대로 손대기 시작하면 얻을 수 있는 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14, 15, 16, 17, 18, 19 와 26, 27, 28처럼

[중하,중중,중상,상하 난이도의 4점 문제들]을 훈련하고 싶으실텐데 이것들‘만’ 담겨있는 문제집은 지금까지는 제가 본 적은 없었어요ㅠㅠ

그나마 제가 여태까지 본 책 중에서는 <N기출 수능기출문제집 가형(자연계) 4점 집중>이라는 책이 평가원 4점들만, 그리고 어려운 3점들만 변별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도 기출문제집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처럼 [전 난이도의 문제가 다 실려있는 문제집]을 구입하고,

거기에 있는 16~19, 26~28의 문제를 일일이 골라 푸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ㅠㅠ

좀 번거로운 과정을 겪긴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익숙해져요ㅋㅋ

그래도 <N기출 수능기출문제집 가형(자연계) 4점 집중>은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등등 에 있는 문제와 똑같은 기출문제 수록된 기출문제집이고,

오히려 4점 전부랑 어려운 3점만 분류돼있다는 점에서는 더 깔끔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2~6월까지의 20, 21, 29, 30 문제들은 문제집 풀면서 거르면 되구요.

애네들은 2~6월까지의 <현우진T 수분감>인강, [강남구청인강] 같은 거로 대체하면 되고,

7월 이후부터 혼자 풀 수 있을 때 풀면 되니까요.

Q. 13

제가 이번 수능이 3등급인데 작년 일 년 내내 27문제를 100분 동안 풀었습니다.

이번 수능은 81점으로 톱결이 3등급이고 역시나 킬러를 제외한 문제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제가 수능 수학을 공부한 적이 작년이 처음이었는데 지금부터 많은 문제집을 푸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다양한 인강선생님들의 '비킬러 공략 문제집'을 푸는 게 나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킬러를 제외한 문제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쉬운 3,4점 문제 각각에 대한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순발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반복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발력·사고력은 제가 글에 언급했다시피, 반복과정과 시간투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1년은,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너무나 긴 시간이지만, 경험이 없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의 친구들이라면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제대로 공부를 한다'는 뜻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한 문제집만이라도 제대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좋기야 하겠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를 스스로 선별하는 게 어려우니

거기서도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비킬러 공략 문제집'을 문제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 자연스럽게 시간은 단축됩니다.

한 문제집을 골라서, 그 문제집만 3번 이상 푸세요.

또한, 한 번에 유형을 섞어 풀지 마시고,

1일차는 삼각함수 그래프만 해당하는 문제 전부,

2일차는 도형의 극한에만 해당하는 문제 전부

이렇게 푸세요. **의문을 갖지 말고, 실천부터 하세요.** 반복의 힘을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학생분께서는 수능수학을 1년밖에 공부를 하지 않았고, 순 시간으로 따지면 제대로 공부한 시간은 500시간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미2, 기백, 확통 각 분야 당 200시간, 200시간, 5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겠네요(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시간투자에 비례하는 게 실력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1년 동안 시간투자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재수 때 2~7월까지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고, 그 뒤로는 제 공부법 틀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갖춰졌는데요, 재수 때에는,

◆2~7월까지 하루에

인강과 학원수업을 포함하면 6시간 이상,

순수자습시간만 따지면 4시간 이상,

7월부터는 인강을 들을 필요가 더이상 없었고,

모의고사 28푸는 데 걸린 시간 대략 80~100분

◆8~9까지 하루에

학원수업을 포함하면 4시간 이상,

순수자습시간만 따지면 2시간30분 이상,

모의고사 28푸는 데 걸린 시간 대략 70~100분

◆10~11수능까지 하루에

학원수업이 거의 없어서 거의 듣지 않았고,

순수자습시간만 3시간 이상

모의고사 28푸는 데 걸린 시간 대략 50~80분

의 기초를 평상시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2~7월입니다.

이 기간에 제대로 시간투자를 안 하고 반복을 안 했다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았을 테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렀을 겁니다.

같은 문제집을 반복해서 푸는 것부터 **아무 생각 말고 실천부터 하세요.**